

定慧社

불기 2550년 여름 | 제33호



교수논단 고려·조선시대 선종의 전개와 송광사 범중法衆의 추이
정혜탐방 백양사 율원 율주 동성혜권東星慧權 스님
특별취재 그늘 속에 드리운 햇살
학인기고 공양의례供養儀禮에 관하여
언어문자言語文字와 깨달음

송광사 전통강원

오체투지 五體投地



사찰을 찾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1000배 혹은 3000배 등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절(오체투지)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절이 다이어트 및 전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에 대해 무작정 나쁘게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절의 바른 의미를 새기지 않고 절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이란 몇 시간 동안 몇 번을 했다는 성취감이나 다이어트 효과 이외에 여러 뜻과 의미로써 스스로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세상을 따뜻이 하는 수행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이란 다른 말로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오체투지란 자신을 낮추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낮춰서 바닥까지 낮추는 것도 모자라 땅 아래 더욱 낮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을 할 때 오체투지가 이루어진 뒤 두 손을 뒤집어 귀 밑까지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은 부처님의 발을 받든다는 뜻 이외에 지극한 하심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마치 두 손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바닥 아래 자신을 더욱 낮출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두 손을 통해 땅을 들어 올려 나의 머리를 땅속 깊숙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것은 물론 부모, 형제, 이웃을 비롯하여 나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를 설하셨습니다. 절을 통하여 자신을 낮출 때도 역시 나의 영혼이나 또다른 나의 주체자가 있어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다른 영혼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을 하는 나는 다섯 가지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체투지에서 오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체투지를 할 때는 이마를 비롯한 두 팔꿈치와 두 무릎·등·몸의 다섯 부분을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것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한 다섯 가지 몸을 땅에 던져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눈, 귀, 코, 혀, 몸을 통하여 수많은 감각적인 자극과 쾌락을 쫓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부분은 항상 변화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소유할 수 없고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절을 하면서 이 다섯 가지 몸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 절과는 달리 불교의 오체투지를 할 때는 발을 X자로 포깁니다. 그 이유는 불교에서의 왼쪽은 고요한 마음의 본성을 상징하며, 오른쪽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왼발로 오른발을 X자 모양으로 누르는 것은 밖으로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고요한 본래 성품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듯 오체투지에는 작은 발동작 하나까지 깨달음을 향한 지극한 마음이 표현됩니다. 오체투지는 단순히 부처님을 떠받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절하고 있는 법당의 정면에 놓인 돌이나 금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00배 3000배를 절한다 해도 그 의미가 바로새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체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깨달음을 지향할 때야말로 부처님을 바르게 받들고 공경하는 일이고, 우리의 참모습을 기르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定慧社

불기 2550년 여름호 | 통권 제33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병술년 하안거 결제 법문 | 범일 보성
- 6 교수논단
고려·조선시대 선종의 전개와 송광사 법중法衆의 추이 | 원경
- 16 기획연재1 - 송광사 벽화의 세계
대응보전의 벽화 | 편집실
- 20 지대방 이야기
아랫반의 마음 | 승찬
강원의 하루 | 혜연
대중생활 | 혜문
앗! 나의 실수 | 신해
- 24 정혜탐방
백양사 율원 율주 동성혜권東星慧權 스님 | 편집실
- 28 목우만평
유구무언 | 상국
- 30 목우단상
서書 | 시명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 | 혜소
진정한 아름다움 | 불각
- 34 특별취재 - 소년소녀가장돕기 동행기
그늘 속에 드리운 햇살 | 편집실
- 38 바람소리 한자락
동아보살 | 능인
나침반 | 연관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 법공
- 42 경전 한 구절
행복하라
- 43 詩가 있는 풍경
그대의 門 | 시관
차 마시기 좋은 날 | 종관
미소 | 연본
- 46 학인기고
공양의례供養儀禮에 관하여 | 지륜
언어문자言語文字와 깨달음 | 정응
- 52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 55 소년소녀가장 후원안내
- 56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오월의 햇살 속에 파릇한 찻잎들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곳곳마다 찻잎 따기에 분주한 스님들, 저마다 어린 찻잎 모으는데 무아지경입니다. 어느새 울울히 솟은 찻잎들 가득 담은 소쿠리... 은은한 산사의 기운을 듬뿍 담은 구수한 차 한 잔처럼 우리의 신심도 넉넉히 우려났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혜명(입승)
편집장 | 혜도
편집 | 법공·혜연
사진 | 법공

발행일 | 불기 2550년(서기 2006) 8월 3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가획 062) 225-8825



人人避暑走如狂
인인 피서주여광
獨有禪師不出房
독유선사불출방
可是禪房無熱到
가시선방무열도
但能心靜即身涼
단능심정즉신량

선시禪詩 | 백낙천白樂天772~846·선시여설禪詩餘說 | 편집실

“사람마다 더위 피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한데
유독 스님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시네.
선방인들 더위가 닥쳐오지 않으랴 만은
마음이 고요하면 몸은 절로 시원해진다네.”

욕망의 불길.
성냄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
삼복더위인들 이보다 더울까?
아무리 추운 삼동겨울도
이 불길을 꺼트리지 못하네.
분별의 시비, 망상의 갈등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용광로 속에 있어도
코끝에 뿜어지는 숨결은 서늘하리라.
밖으로 치닫는 마음 되돌려
마음 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
그대로서 불보살의
춤사위인 것을...

이 시는 당나라 시대의 시인 백락천이 향적선사를 찾아 갔다가 스님께서 선정禪定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쓴 글입니다.

방장스님 법어

병술년丙戌年 하안거 결제 법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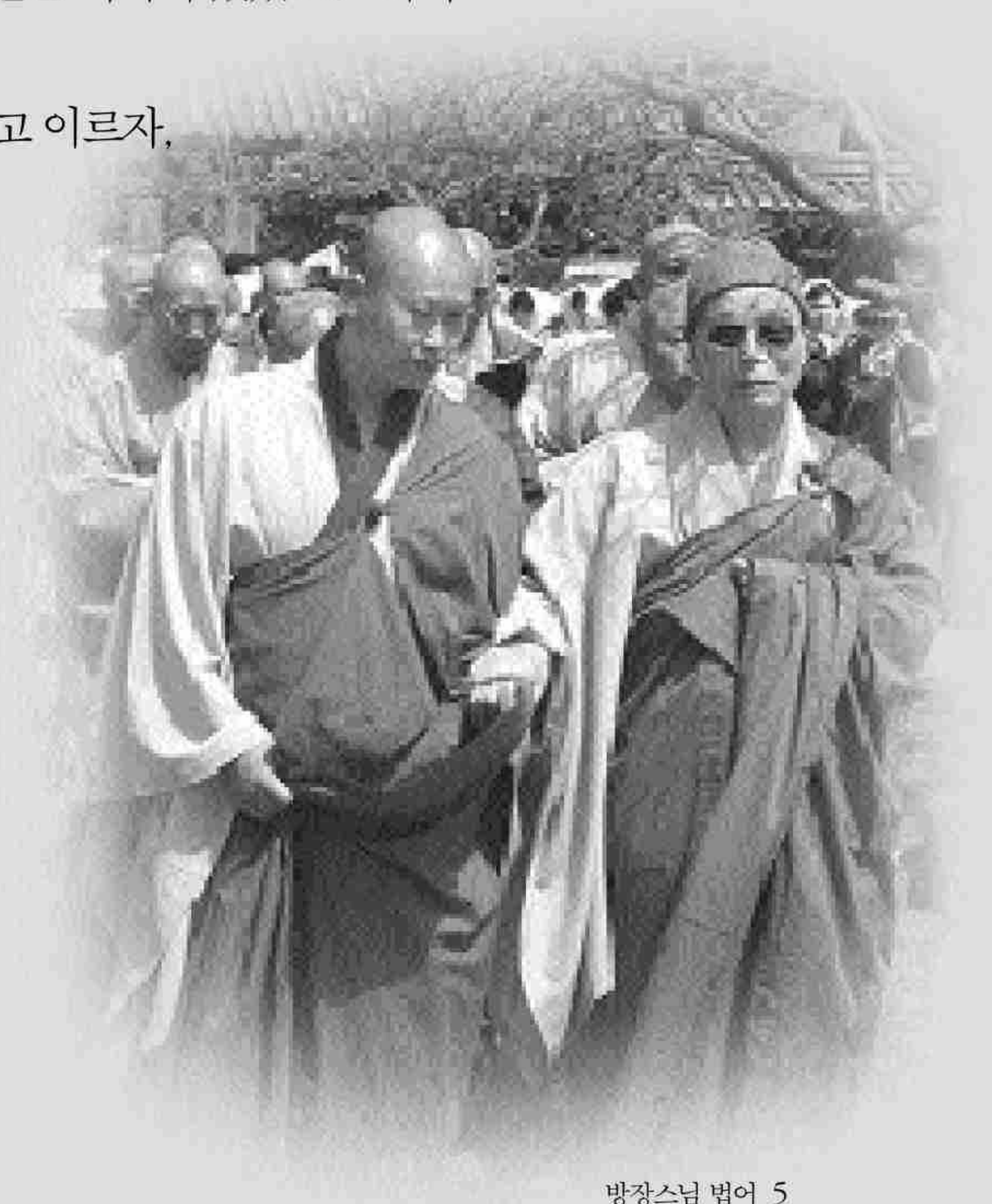
오직 일대사를 위해 시방에서 오신 수행납자들이여,
각자 큰 뜻을 가슴에 품고 모였으니 이제부터 한바탕 호쾌하게 지어가 봅시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 누구 있어 나를 대신하겠습니까.

‘호인은 수염이 붉다고 하더라. 오늘 수염 붉은 호인을 내가 보았다.’

이 한마디를 잘 살피 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공부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저 정진, 정진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편 없습니다.
제가 모신 효봉스님은 참 우직하게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도 나는 미련하게 그저 밀고 나가는 법 밖에 모르니 너희들은 좀 슬기롭게 공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겪어보고 나니 그분의 공부법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편이었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중국 황룡선사 회상에 어느 날 낮선 이가 와서 도청을 하다가 들켰답니다.
알고 보니 그이는 당대 도교의 종장인 여동비였어요.
황룡스님이 그이더러 묻기를,
“당신은 몇 만세를 사는 도인이라고 하는데 천지가 생기기 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소?” 하니
여동비가 그만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어요.
황룡스님이 이어, “물이 다하고 땅이 다하니 황룡이 출현했도다” 하고 이르자,
그 언하에 여동비가 알아차리고 조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상과 지혜를
갖추었으면 한판 멋지게
해치울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오직 간절하고 철저하게
파고들어 한판 멋지게 해치웁시다.
산승은 미력을 다해 시봉을
할 테니 출격 대장부들이여,
이번 철에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기 바랍니다. **定慧社**



고려·조선시대 선종의 전개와 송광사 법중法衆의 추이

원경元鏡 | 松廣寺講院 講師 ekayanawk@hanmail.net

1. 들어가는 글
2. 고려·조선시대 선종의 전개
 - 1) 9산선문의 형성과 전개
 - 2)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 3) 몽산 선풍의 도입
 - 4) 억불기 불교계의 동태
3. 조계산 송광사 法衆의 변화에 따른 원인과 문제
 - 1) 화엄종 시대의 법중 추이
 - 2) 수선사 전성시기의 법중 변화와 그 원인
 - 3) 수선사 침체기의 법중 변화에 따른 문제
4. 마무리하는 글



1. 들어가는 글

문화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멸·변화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과거 문화의 한 현상으로 나타난 역사의 경우 그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그 역사가 과거의 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의식에 일정부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法衆의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965년 기산 임석진스님에 의해 初版된 『송광사지』에 보면 “錦溟寶

鼎 화상은 삼십년 동안 開山 이래 그 사이에 묻히거나 散在해있던 소중한 史料들을 찾아 모았고 그것을 綺山스님이 建物部, 人物部, 雜部, 山林部의 네 책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엮어 짚으며, 이를 龍隱스님이 깨끗이 整書하여 1928년에 저 유명한 『송광사사고』를 이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송광사사고』는 기산스님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기술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사고』 건물부 가운데 ‘法衆의 增減’이라는 부분을 보다가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 기 논문을 쓰게 되었다.

첫째, 송광사 법중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송광사는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도량

으로 고려 중기 이후 한국불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송광사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고려와 조선의 불교사와의 관련 속에서 유기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고려 말 조선 초기 선종의 전개를 우선 살펴보고 나서 한국불교사 속에서 송광사 법중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둘째, 『사고』 건물부에서 ‘法衆의 增減’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法統의 變遷’을 살펴보는 가운데 기산스님의 역사관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조계종의 증흥조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는 조계종의 중흥조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사고』에 나타난 기술을 통하여 객관적인 측면에서 태고 종통설의 문제점을 언급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다만 송광사 법종의 증감에 따른 원인과 이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연구의 논리적 순서 상 먼저 고려 말 조선 전기 불교사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특히 선종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여 이 논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고찰해 본 후 다음 장에서 송광사 법종의 변화와 그 원인을 유기적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대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고려 중·후기에서 조선 초기로 한정하여 각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

2. 고려·조선시대 선종의 전개

1) 9산선문의 형성과 전개

보리달마(?~528?)는 북위시대에 중국에 들어와 석존의 정법안장을 전하게 됨으로서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된다. 이후 그의 정법은 神光慧可 - 岨公僧璨 - 雙峰[大醫]道信 - 黃梅弘忍 - 曹溪慧能으로 면면히 이어지면서 초기 중국 선종의 법계를 형성해 가게 된다.

한편 중국 선종의 제4조인 道信(580~651)의 선법을 가장 먼저 신라에 전한 이는 法郎이라고 한다.¹⁾ 그리고 神行에 의해 북종선이 도입되었다고²⁾ 전해지나 각각 그 활동은 미미하여 잘 알 수 없고 9산선문이 전래되기 전에 이미 다른 선법이 전

해졌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迦智山寶林寺普照禪師碑〉에 따르면 해동의 한국선종은 신라 말도의국사에 의해 남종선이 최초로 전래되면서 본격적으로 비롯되었다고 한다³⁾. 이제까지 9산선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⁴⁾ 각 산문의 전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상의 연구 자료를 통해 본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9산선문과 조계종이라는 용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도의국사가 신라 41대 헌덕왕 13년(821)경에 귀국하여⁵⁾ 선법을 전래하면서 9산선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9산선문'이라는 용어는 9개의

開山名	開山祖名	開山地	傳來法	주요한 근거
迦智山門	道義	장흥; 가지산 보림사	西堂地藏	〈迦智山寶林寺普照禪師碑〉
實相山門	洪陟	남원; 지리산 실상사	西堂地藏	『祖堂集』 권17, 東國實相和尚傳 등
桐裏山門	慧徹	곡성; 동리산 태안사	西堂地藏	〈桐裏山太安寺寂忍禪師碑 등〉
鳳林山門	玄昱	창원; 봉림산 봉림사	章敬懷暉	『祖堂集』 권17, 東國慧日和尙傳 등
獅子山門	道允	영월; 사자산 흥령사	南泉普願	『祖堂集』 권17, 雙峯和尚傳 등
闍崛山門	梵日	강릉; 사굴산 굴산사	鹽官齊安	『祖堂集』 권17, 溟洲崛山故通曉大師 등
聖住山門	無染	보령; 성주산 성주사	麻谷寶徹	『祖堂集』 권17, 嵩巖山聖住寺故兩朝國師 등
曦陽山門	道憲?	문경; 희양산 봉암사	慧昭	〈曦陽山鳳巖寺靜眞大師碑〉
須彌山門	利巖	해주; 수양산 광조사	雲居道膺	〈須彌山廣照寺眞澈大師碑〉

1) 〈鳳巖寺智證大師碑〉(『朝鮮金石總覽』上, pp.90~91) —唐四祖爲五世父 東漸于海 迦遊數之 雙峰子法郎— 郎大師從大醫之大證—

2) 〈斷俗寺神行禪師碑〉(『朝鮮金石總覽』上, p.115)

3) 〈迦智山寶林寺普照禪師碑〉(『朝鮮金石總覽』上, p.63) 是以達摩爲唐第一祖 我國則以儀大師爲第一祖 居禪師爲第二祖 我師第三祖矣

4) 9산선문에 대한 연구는 金英遂의 「曹溪禪宗에 就하여」(『진단학보』9, 1938)을 시작으로 하여 高翊晉의 「新羅下代の 禪傳來」(『韓國禪思想研究』, 1984)와 崔柄憲의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形成」(『韓國佛教禪門의 形成史研究』, 1992)와 김영태의 여러 논문들이 있다.

5) 〈鳳巖寺智證大師碑〉(『朝鮮金石總覽』上, p.62) 泊長慶初 有僧道義 —

산문 가운데 가장 늦게 형성된 희양산문과 수미산문이 형성된 고려 태조 15년(932) 이후에야 성립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9산선문 가운데 수미산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6祖慧能-南嶽懷讓-馬祖道一로 이어지는 洪州宗 마조의 제자에게서 전법하였고 수미산문의 개산조인 利嚴은 6祖慧能-靑原行思-石頭希遷 계열인 僞仰宗의 (藥山惟儼-雲巖曇晟-洞山良价-雲居道膺) 운거도응에게서 전법하였다.

한편 태조 때에는 이엄과 성주산문의 麗嚴과 가지산문의 迥微, 사자산문의 慶猷 등이 모두 석두계열의 운거도응에게서 선법을 傳持하여 귀국하였다. 그리고 봉림산문의 璨幽도 석두계열의 丹霞天然-翠微無學-投子大同의 선법을 전지하였고 희양산문의 競讓도 석두계열의 藥山惟儼-道吾圓智-石霜慶諸의 선법을 전래하였다.⁶⁾ 이렇듯 9산선문의 도입 초기에는 주로 마조계열의 선법을 전지하였지만 9산선문이 형성된 이후 태조 때에는 석두계열의 선법을 수수하여 전래되었음에도 한결같이 '9산선문'을 조계종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조계종⁷⁾이라는 명칭은 고려 명종 2년(1172)에 대감국사 坦然(1069~1158)의 비석을 세

우면서 '高麗國曹溪宗岬山下斷俗寺大鑑國師'라는 碑題에서 시작된 다. 그러나 탄연 이전의 여러 자료에서 宗名을 나타내는 '조계'라는 글자가 들어간 용례들은 많이 발견할 수 있다.⁸⁾

그 가운데 중요한 자료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重修龍門寺記 ; 大禪師 祖膺은 — 을사년(1125) 曹溪選에 中格했다.⁹⁾

② 南嵩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之碑銘 ; 僧統이 송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던 天台·賢首·南山·慈恩·曹溪·西天梵學 등을 한꺼번에 다 전해왔다.¹⁰⁾

③ 金剛山楡岾寺事蹟記 ; 曹溪大禪師 益藏이 금강산 유점사에 來任하였다.¹¹⁾

이상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조계종'이라는 宗名은 탄연 훨씬 이전에 성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려 시대에 승과제의 실시는 광종 9년(958)이다. 그러나 이때는 주로 教宗 계통의 僧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禪宗 계통의 9산선문 승려들이 승과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은 宣宗 원년(1084)이라고 한다.¹²⁾ 따라서 重修龍門寺記의 祖膺은 인종 3년(1125)에 9산선문에 속

한 승도들의 승과인 曹溪選에 합격하였던 것으로 보아 9산선문을 일컬어 조계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음 자료인 大覺國師碑銘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 碑銘은 인종10년(1132)에 세워졌는데 우세승통 대각국사의천이 송나라로부터 천태종·화엄종(현수)·율종(남산)·법상종(자은)·선종(조계) 등 당시 중국에 흥성했던 종파들을 전해왔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曹溪'라는 宗名을 쓰지 않았는데 碑銘에서 당시 고려의 다른 종파 이름과 나란히 조계를 열거한 것을 보면 이미 9산선문을 조계종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 선종의 5가 7종 대부분의 선법을 수용하였음에도 종파적 한계에 머물지 않고 선종을 꽃피우게 된 근원인 6조혜능의 조계를 증명으로 삼은 것은 한국 불교가 가진 통불교의 또다른 측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9산선문의 전등법계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초기 9산선문에 대한 전등법계도에 대해서는 高翊晉의 「新羅下代の禪研究」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고려 초기에 이르러서는 여러 산문

6) 蔡印幻, 「高麗前期 禪思想의 展開」, pp.91~92(『韓國禪思想研究』, 동대 출판부, 1984)

7) 조계는 6조혜능이 머물렀던 廣東省 韶州 雙峰山 아래 寶林寺가 자리했던 곳의 地名이다. 6대사께서 이곳에 머물러 선종을 크게 일으켜 교화하였기 때문에 조계대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도의국사 이후 신라와 고려에 전래된 모든 선종은 조계를 조사로 하는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사용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드물게 禪宗에 禪寂宗, 達摩宗이라는 宗名도 보인다.

8) 이에 대한 연구는 김영태, 『불교사상사론』(민족사, 1997), pp.612~614를 참조

9) 李知命 撰, 〈重修龍門寺記〉(『朝鮮金石總覽』上, p.410) 大禪師祖膺— 乙巳年曹溪選中格

10) 〈南嵩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之碑銘〉(『朝鮮金石總覽』上, p.332) 僧統— 來上國

所有天台南山賢首 慈恩曹溪西天梵學 一時傳了

11) 閔漬 撰, 〈金剛山楡岾寺事蹟記〉(『楡岾寺本末寺誌』, p.48)

12) 『高麗史』 世家 卷第10, 宣宗 甲子元年 條에 보면 普濟寺僧 貞雙 등이 왕에게 奏請하여 '九山門 參學僧徒' 들도 進士科처럼 選試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소속의 선승들이 중국에 들어가 석두계열의 조동종 선법을 배우고 귀국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고려의 선사들은 중국 선종의 선법을 전래한 9산선문이 종파, 또는 분파적 개념이 아니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한국의 조계종은 중국 선종이 시대별로 변화 발전된 선법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현존 자료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산선문의 전등법계가 유지된 것은 가지산문과 사굴산문뿐 나머지 산문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고려 후대 이후에는 앞의 두 산문이 조계종의 중심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조선 시대 편양언기 이후 嗣法에 의한 전등법계 즉 宗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이전까지는 다만 산문은 출가한 師法이 소속된 곳이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단적으로 보각국사일연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가지산문에 출가하였지만 조동종의 선사상과 목조선맥을 담은 『중편 조동오위』를 저술하였으며 사굴산문의 보조국사를 遼嗣(遠嗣)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가지산문 소속으로 남아있다. 즉 어떤 산문의 전등법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전등설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9산선문의 도입배경과 그

선법의 특징은 무엇일까.

9산선문이 전래될 당시 중국에는 북종과 홍주종, 우두종, 하택종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주로 마조계열의 홍주종이 주종을 이룬 것은 무슨 까닭이 있을까.¹³⁾ 규봉종밀의 『도서』에 따르면 홍주종은 ‘直顯心性宗’에 속하며 이에 대응하는 교종으로는 화엄종으로 ‘顯真心卽性教’가 있다고 하였다.¹⁴⁾ 『마조어록』에 따르면 ‘일체법이 모두 그대로 佛法이며 — 諸法은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행주좌와가 모두 다 不思議한 作用’¹⁵⁾이라고 하여 홍주종은 화엄의 법계 연기설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최병현의 지적처럼¹⁶⁾ 9산선문의 선승들은 직간접적으로 화엄종과 관련이 깊어 자연히 여러 선종 가운데 홍주종에 끌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더구나 마조의 頓禪은 화엄의 변쇄한 교리와는 달리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주장하므로 신라시대 ‘화엄교학의 術學的이며 司祭的인 불교’를 대치할 가장 적절한 대안적 방법으로 여기지 않았을까¹⁷⁾ 생각된다.

2)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보조국사가 처음 거조암에서 정혜결사를 結構한 것은 당시 고려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우선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결사의 동기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담선법회의 時弊에 대

한 문제이다. 보조국사는 명종12년(1182)에 普濟寺 담선법회에 참석 한 후 다음과 같은 탄식을 하였다.

佛法을 핑계로 ‘나’ 다 ‘남’ 이다 분별하며 利養의 길에서 허덕이고 風塵의 가운데에 골몰하며 도덕은 닦지 않고 衣食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오늘 이 법회가 끝나면 마땅히 우리는 명예와 이권을 버리고 산 속에 들어가 同社를 만들어 항상 禪定을 익히고 아울러 智慧를 닦기에 힘쓰며, 예불하고 경전을 읽고 나아가 힘들여 運力하면서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해 나가면 그 가운데서 인연을 따라 心性을 수양하여 한평생 구속없이 지내어 達士와 眞人の 높은 수행을 따르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¹⁸⁾

본래 담선법회는 禪에 관한 이치를 서로 담론하고 아울러 실천적 參禪도 겸하여 선풍을 진작시키는 행사이었다. 그런데 이날 법회에서는 공부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세속적인 이야기뿐이었다고 한다. 보조국사는 당시 승려들이 利養만 탐내고 명예와 이권에 눈이 멀어 출가인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고려 불교계의 실태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선종과 교종의 교단이 서로 정권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13) 최근에는 마조스님과 신라 출신의 정중무상스님과의 嗣法 혹은 법의 授受 관계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14) 宗密, 『都序』(大正藏48, pp402 b~405 c)

15) 『江西馬祖道一禪師語錄』(卍續藏經119, p.812 b) 一切法皆是佛法—諸法不出於眞如 行住坐臥悉是不思議用

16) 최병현, 앞의 논문, p.86

17) 채인환, 앞의 논문, p.74

18) 「권수정혜결사문」(『한국불교전서』4, p.698 a~b)

현실 속에서 승단의 여러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극복할 능력을 상실한 채 세속적 이권에 전도되어 버린 실태를¹⁹⁾ 직시하고 교단을 정화하고자 정혜결사로 촉발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정혜결사의 또 다른 遠因은 불교 내적인 측면에서 “禪을 숭상하여 교를 배척하고 혹은 教를 숭상하여 선을 훼방하며” “禪敎의 兩家가 길이 원수의 見을 짓는²⁰⁾” 불교계를 통합하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미 숙종 2년(1097)에는 대각국사의천에 의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천태종을 개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교를 중심으로 한 교선일치의 통합을 주창하며 천태종을 창종하였다.²¹⁾ 의천이 국청사에서 천태교학을 강설하자 舊學을 버리고 이에 가담한 승려가 1천여명이나 되었다.²²⁾ 그 중 9산선문의 유능한 선승들이 천태종에 많이 들어왔다²³⁾고 한다.

어쨌든 선종과 교종의 통합은 고려시대 불교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 천태종의 개립으로 위축된 9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을 중심으로 선종의 祖道를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²⁴⁾ 보조국사는 이러한 당시의 여러 상황을 타개하고 교단을 정화하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정혜결사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조국사는 당시 고려 말 교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융화적 사상을 견지하며 스스로 정진과 깨우침을 통해 여러 현안문제들을 실천적으로 풀어나갔다. 그것은 보조선의 구조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보조선 속에는 荷澤神會의 知解禪도 있고, 圭峯宗密의 禪敎一致가 있고, 慧能의 無相定慧에 입각한 불교 본연의 戒定慧三學均修 定慧雙修가 있고, 賢首法藏을 비판한 李通玄의 특이하고도 독자적인 圓頓信解의 방법이 있으며, 그 당시 중국에서 최초로 체계화된 大慧宗杲의 看話徑截禪이 들어있다’²⁵⁾고 하겠다. 단지 보조국사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교일치의 원융사상 속에서 이를 통합한 후 결사를 통해 화쟁사상을 실천하였다. 다음의 <비문>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사람에게 지송하기를 권함에는 항상 『金剛經』으로 하고, 법을 세워 교의를 펼 때에는 뜻은 반드시 『六祖壇經』으로 하였으며, 이장자의 『화엄론』과 『大慧語錄』으로써 서로 날개를 삼았다. 문을 여는데 三種이 있어 惺寂等持門, 圓頓信解門, 徑截門이라고 하니, 이에 따라 수행하며 믿음에 들어가는 자가 많았으니 禪學의 왕성함이 近古에 비할 데가 없었다.

그런데 보조국사가 경전과 어록을

통해 특정한 스승없이 깨달음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 보조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보조국사에 의해 성립된 선교일치 정신에 따른 간화선의 전통은 송광사를 중심으로 15국사에 의해 유지되었고 그것은 곧 한국선의 특징이면서 전통이기도 하다.

3) 몽산 선풍의 도입

보조선과 보우선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깨달음 이후에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문제라고 하겠다. 보조스님은 일생에 3번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動因이 되는 것은 경론과 어록을 통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과정은 있으되 깨달음을 얻은 후 다른 누군가에게 검증을 받는 일은 없었다. 그는 일정한 스승 없이 공부하고 경론을 통해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태고보우는 佛脚寺의 蔡中菴宅 栴檀園에서 활연 개오한 후 47세에 霞霧山 天湖菴의 石屋清拱 화상을 찾아가 태고암가를 전한 후 그의 인가를 받는다.

보조국사의 無師得悟와 태고보우의 悟後印可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한국의 선종사에 있어서 깨달은 후에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전통은 蒙山德異의 선풍이 전래되고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19) 김광식, 『고려무인정권과 불교계』(민족사, 1995)

20) 진각국사의『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발문

21) 이영자, 『한국천태사상의 전개』(민족사, 1992), pp.32~33

22) <南嵩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之碑銘>

23) 「청도운문사원응구사비」에는 ‘선승 가운데 6,7할이 천태종으로 개종’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24) 김상영,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의천』, 예문서원, 2002) pp.268~276

25) 심재룡, 「보조선과 임제선」, 『보조사상』 제8집, pp.119~120

하겠다. 몽산은 깨친 후에는 반드시 본분종사를 친견하여 인가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법문 마지막에는 항상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을 거듭하여 강조하였다.²⁶⁾ 원나라와 고려 사이의 왕성한 禪籍의 교류를 계기로 몽산과 고려 선사들과의 왕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몽산의 법을 계승한 鐵山紹瓊이 고려에 들어와 3년간 머물면서 이러한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²⁷⁾ 이것이 계기되어 이후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선지식으로부터 받는 인가의 과정이 嗣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억불기의 불교계 동태

조선이 새롭게 개국하면서 불교계가 암흑의 깊은 터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떤 원인 때문일까. 이 문제는 불교교단 내적인 요인과 불교 외적인 요인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불교가 박해받게 된 원인을 불교교단 내적인 요인에서 찾아보자. 먼저 고려 말 불교계의 상황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민왕이 왕사인 태고보우에게 治國의 도를 묻는 자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종 교단의 문제를 설명한다.

‘지금 九山의 참선하는 무리들이 각기 그 문을 배경으로 하여 서로 자기는 잘나고 저쪽은 못났다 하여 싸움이 심하고 근래에는 더욱더 道門

으로 자기들의 창과 방패로 삼고 율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화합이 깨어지고 정도에 어긋나게 되었습니다.’²⁸⁾

이상이 태고보우가 선종교단을 자체 진단한 결과이다. 그래서 그는 왕사로서 불교계를 총괄하는 중앙 승관청인 원융부를 설치하여 ‘九山統攝’과 ‘五教弘通’ 즉 결국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시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의 교단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었는지 모른다. 이에 대한 국가의 조치로 고려 말 충숙왕 무렵부터 승유억불정책을 실시하며 도첩제를 도입 시행하게 된다.

다음은 태조 7년 兩街都僧統 尙孚와 흥천사 監主 尙聰이 조정에 올린 불교 쇄신책은 각각 다음과 같다.

兩街都僧統 尙孚가 ‘僧이 술 마시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니, 왕이 憲司를 시켜 엄금하게 하고 이를 범하는 자는 머리를 길러 充軍하게 하였다.²⁹⁾

이러한 상황에서 태고보우의 제자인 慧庵尙聰이 교단의 정화방안으로 올린 상소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하께서는 지금부터 禪宗과 教宗 중에서 도덕과 才行이 領袖가 될 만한 자를 가려서 서울과 지방의 유명 사찰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禪을 맡은 사람에게는 禪을 설명하면서

拂子를 잡게 하고, 教를 주관한 사람에게는 經을 講經하고 律을 설명하게 하여 그 후진들로 하여금 선종은 『전등록』의 業송을, 교종은 경율의 論疏 節을 따라 강습시켜 세월이 오래가면 뛰어난 인물과 덕망이 높은 인물이 어느 절에도 없는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흥천사를> 本寺라고 일컬었으므로 그 서울과 지방의 유명한 사찰도 마땅히 송광사의 제도를 모방하여 모두 본사의 소속으로 삼아서 서로 糾察하십시오.³⁰⁾

이상은 상충이 태조에게 불교계 교단을 정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송광사의 정혜결사 가풍을 따라 조정에서 불교를 쇄신하도록 상소한 것이다. 尙聰은 태고의 문도이면서 송광사의 주지를 하였고 교단의 정화에도 열성적이었는데 송광사의 정혜결사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 초는 정혜결사를 했던 고려 중기의 불교계 교단, 즉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선교 간의 대립이 심하였다는 반증일 것이다. 결국 태고로부터 상충에 이르기 까지 이어진 교단의 정화는 국가의 힘을 빌어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결국 태종 세종 중종으로 이어지는 억불로 불교교단은 강제적인 조치로 통합교단을 이루어 이후 산중불교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다음은 불교 외적인 요인에서 박

26) 『示聰上人』 『몽산법어』

27) 조명제, 『고려 후기 간화선 연구』 (혜안, 2004), pp.151~164

28) 『조계종사』 고종세편, (조계종출판사, 2004), p.241

29)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4월 11일 丁亥條

30)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5월 13일 己未條

해 원인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한반도는 역사상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였다. 12세기 등장한 주자학으로 불교 사상은 지는 해가 되고 신유학은 떠오르는 해가 되었다. 고려 시대 불교는 국가와 민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실덕을 하여 새롭게 등장한 유교 사상에 맞설 수 없게 되었다. 불교가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은 5백 여년에 걸친 엄청난 박해로 돌려받게 되었다.

또한 이성계에 의해 건립된 조선은 왕조 초기에 사찰이 소유한 막대한 경제력을 회수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조의 억불정책과 유학자들의 상소에 의해 사찰이 소유한 많은 노비와 토지를 압수당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새로운 왕조에게 거의 위협적이었을 사찰의 막대한 재산을 압수함으로써 적은 노력으로 국가의 재정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3. 조계산 송광사 法衆의 변화에 따른 원인과 문제

1) 수선사 이전의 법중 추이

기산스님에 의해 1928년에 편집된 《松廣寺史庫》 제1편 건물부 제1장 사적류 제3절 송광사연혁에 따르면 「開山 및 重營」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라 때 僧 慧璘이 처음 백여간

의 작은 암자를 창건하여 거처하였다. 寺額은 길상사라고 하고 山名은 송광산이라고 하였다. — 고려 인묘조에 山僧 釋照가 장차 큰 사찰로 만들고자 하여 재료를 구비하고 工匠을 모았으나 불행히 몸이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법중에 대해서는 “혜린의 개창 이후부터 보조의 大創 이전까지 겨우 3, 4십명이 기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송광사의 初創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혜린스님을 ‘華嚴宗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965년에 편찬한 『송광사지』에 “本寺의 寺額이 곧 華嚴 제2회의 說主인 문수사리의 譯言임에 말미암아” 혜린대사는 화엄종의 종도였다고 단언하였다. 즉 수선사 이전 본사의 사액을 吉祥寺라고 한 것은 화엄경의 妙吉祥인 문수보살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혜린대사는 화엄종예라는 것이다. 釋照대사에 대해서도 길상사를 重營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화엄종예였음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³¹⁾

2) 수선사 전성시기의 법중 변화와 그 원인

제1편 건물부 제1장 사적류 제3절 송광사연혁에 따르면 석조대사의 重營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후 50여년이 지나 보조국사가 공산 거조암 청량굴에서 정혜사를 結構하였는데 시간이 흐르자 배우는 이가 成市를 이루어 장소가 협소하여 대중이 거처할 수 없었다. 이에 門弟 守愚로 하여금 강남을 두로 편력하여 結社

安禪할 장소를 구하게 하였다고 한다. 수우스님은 도반 天真과 廓照 두 스님과 더불어 명종27년(1197)에 불사를 시작하였다. 보조국사는 神宗 원년(1198) 봄에 공산에서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옮겨 3년간 內觀을 닦은 후 庚申(1200)에 본사에 이주하였다.

보조국사가 이곳에서 정혜결사를 시작하자 명예와 작위, 처자를 버리고 출가하여 모두 오게 된 이나 王公, 士庶 가운데 명리를 던져 정혜사에 들어온 이 5백 여명이 항상 머물렀다. 진각국사 때 사방의 學者 및 道俗, 高人 등이 구름처럼 내달아 다다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원감국사 때 선객이 수천명을 헤아릴 정도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송광사연혁에 의하면 보조국사에 의한 수선사의 불사가 신종원년(1198)에 시작되어 9년에 걸쳐 중창 불사가 이루어졌고 수선사 2세인 진각국사 때에 康宗의 명에 따라 중창이 시작되어 대도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송광사가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며 번창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보조국사는 본래 “명예와 이권을 버리고 산 속에 들어가 同社를 만들어 항상 禪定을 익히고 아울러 智慧를 닦기”를 발원하였고 송광사에서 정혜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결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지방 사회의 향리들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정혜결사에 호응해 오는 무리들이 많았다. 비록 비문에 熙宗께

31) 현재 송광사의 예불문에서 창건주를 혜린선사로 모시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호칭을 선사라고 하는 것은 화엄종의 후예라는 설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즉 당시는 교종과 선종이 분명히 구분되던 때이므로 교종의 승려에게 禪師라는 호칭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차사창건주 혜린선사”라는 문구는 회광일각방장스님(1984~1986) 때 첨가되었다고 한다.

서 정혜결사의 명성을 듣고 '조계산 수선사'라는 편액과 만수가사 1벌을 내려주었지만 구체적으로 국가의 지원은 나타나지 않는다.

수선사 제2 진각혜심에 이르러 최씨무신정권의 본격적인 후원으로 수선사는 대사원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무신정권과 수선사 간에 상호 협력하게 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무신정권의 입장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 최씨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주로 식음의 명목으로 장악한 서부 경남 일대의 田莊과 전라도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일대 지역을 경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³²⁾ 그리고 최씨정권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방의 향리들이 당시 수선사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자신의 후원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이다.

한편 수선사는 무신정권이 주도된 국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즉 몽고군의 침입이 일어나자 조정에서 주관이 된 鎮兵法會에 수선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든가³³⁾, 몽고 침략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시작된 대장경 조성 사업과 담선법회에 수선사 제4세 진명국사와 제5세 원오국사가 차례로 선원사의 범주가 되어 항몽의식을 고취한 것이 좋은 본보기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선사의 적극적인 현실참여 정신은 어디에서 연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수선사의 정혜결사

가 일관되게 표방한 간화선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적으로 송대 대혜스님이 직접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여 간화선을 전개한 그 정신이 바로 수선사 계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선사 제6세인 원감국사는 원나라의 世祖에게 淸田表를 올려 빼앗긴 수선사의 땅을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원나라에 호출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원 세조로부터 스승의 예를 받고 귀국하자 국가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이렇듯 보조국사 이래 내려오던 수선사의 사세와 가풍이 원감국사 때까지 유지되었으나 이후 수선사 계열은 퇴조하기에 이른다.

3) 수선사 침체기의 법종 변화에 따른 문제

원나라의 간섭기에 이르면 선종 가운데 사굴산문의 수선사 선원사계열은 쇠퇴하고 가지산문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한다. 당시 중국이나 고려 사상계의 흐름으로 본다면 주자학이 등장하면서 불교계는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사상의 경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려의 불교교단이 안고 있는 문제, 즉 교종과 선종 간의 대립과 교단의 타락 내지는 비대화로 인해 서서히 종교적 순수성을 상실하면서 신흥 유교 세력의 타도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기산스님은 『사고』 제3절 송광사

연혁에서 '법통의 변천'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우선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이전을 '화엄종계열의 시대'라고 하였고, 다음은 보조국사 이래 15국사가 이어오나 무학왕사와 환암혼수가 수선사에 주석하던 시기를 '조계종계열의 시대'라고 하였으며, 다음은 조선 초에서 임란 이전까지는 '조계, 임제양종의 계열이 혼주하던 시대'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 말 懶翁, 幻庵과 조선 초 無學, 高峯은 바로 임제종 계통이며 세종조 때 中印선사는 조계종의 계통이라고 하였다. 이상 기산스님이 『사고』에서 기술한 법통에 대한 구분을 중심으로 수선사 침체기 법종의 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는 시대구분에 나타난 宗의 구분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 개국 초기에 교단의 사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11종이 있었다. 즉 曹溪宗·攄持宗·天台疏字宗·天台法事宗·華嚴宗·道門宗·慈恩宗·中道宗·神印宗·南山宗·始興宗이다.³⁴⁾ 그런데 태종 6년에서 7년 사이에 11개 종파가 7개 종파로 축소되고 있다. 즉 曹溪宗·天台宗·攄南宗·華嚴宗·慈恩宗·中神宗·始興宗이다.³⁵⁾ 그리고 세종 6년 4월이 되면 예조의 계청에 의해 曹溪宗·天台宗·攄南宗을 합쳐서 禪宗 하나로 하고 華嚴宗·慈恩宗·中神宗·始興宗을 합쳐서 教宗 하나로 한다³⁶⁾는 기록이 있다.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고

32) 조명제, 앞의 책, p.111

33) 『무의자시집』이나 『진각국사어록』에 진병을 위한 법어가 여러 번 수록되어 있다.

34) 『太宗實錄』卷11, 6年 6月條

35) 『太宗實錄』卷14, 7年 12月條

36) 『世宗實錄』卷24, 6年 4月條

려 중기 종파가 생긴 이후 태종 이전까지는 11개 종파가 존재했으며 태종 때 11개 종파가 7개로 축소되어 유지되다가 세종대에는 선교양종으로 다시 중종 2년에는 승과의 폐지와 함께 정치적으로 종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기산스님은 『사고』에서 조계종과 임제종이 함께 거주하던 시대라고 하였다. 어떤 기준에 의해 조계종계열과 임제종계열을 나누었는지 알 수 없다.

과연 한국불교사에서 임제종이 존재했었던가. 한국불교사에서 선종은 조계종과 천태종 그리고 총지종(총남종) 뿐이다.³⁷⁾ 중국 선종이 6조혜능 이후에 분화되고 발전되면서 형성된 5가7종의 여러 선법이 한국에 다양하게 전래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조계종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선종에서는 '임제정맥'이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보조국사가 도입한 간화선법의 주창자인 대혜선사는 누구의 후손인가. 그리고 고려 말 태고보우와 나옹혜근이 받아들인 선법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임제의 선사상 또는 선법이 아니라 대혜 간화선의 연장이며 몽산덕이 이후 유행된 悟後印可의 선풍을 전래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당시 시대적 흐름으로 나타난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는 출신 산문의 구분에 대한

문제이다.

신라 말 도의국사에 의해 전래되기 시작한 선법이 고려 초 9산선문으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어느 산문도 선법의 전통을 사자상승으로 온전히 계승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산문이라는 의미가 오늘날의 법맥 또는 종맥과는 다른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즉 현재 조계종의 출가 본사제도처럼 산문이라는 계통도는 단순히 어느 산문에 출가하여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9산선문은 각각 개산한 소속 사찰을 중심으로 산문의 門派를 형성해 나갔다. 러말선초에 이르러서는 그 가운데 가지산문과 사굴산문만이 겨우 산문 형태를 유지하지만 태고보우에 의해 산문의 개념은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태고보우는 가지산문인 회암사로 출가하지만 원나라에 가서 석옥청공의 법을 계승하면서 임제의 적손임을 강조하게 된다. 태고보우를 기점으로 출신 산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후에는 출신산문시대에서 임제후손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이것은 현재 조계종의 중흥조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여전히 논란³⁸⁾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언급하겠다.

처음으로 태고법통설을 주장한 것은 편양언기의 「蓬萊山雲水庵鐘峯影堂記」등이다.³⁹⁾ 즉 임제의 정맥이 太古普愚-幻庵混修-龜谷覺雲-碧溪正心-碧松智嚴-芙蓉靈觀-淸虛休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고보우가 입적한(1382) 후 250여년 가까이 흐른 뒤(1625) 편양언기에 의해 태고법통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 등장하는 태고법통설은 모두 이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철스님은 이에 대해 “편양은 서산의 정통법맥을 전해받은 뛰어난 제자로서, 宗眼이 밝고 학식이 해박하여 근세에 출중한 훌륭한 宗匠이다. 따라서 보통의 사리에도 오류가 없을 것이어늘 宗門의 생명선인 법맥에 대하여 망언과 억설을 범할 이치가 있겠는가.”⁴⁰⁾라고 하였다. 과연 그럴까.

태고의 법을 계승했다고 하는 '幻庵은 懶翁이 主盟이 되어 실시하는 工夫選에 유일하게 入格하며, 幻庵이 일찍이 오대산 神聖庵에 주석하였는데 자주 서로 만나서 道法을 논하였다. 후에 懶翁은 幻庵에게 가사·불자·주장자 등을 주어 신표로 삼은 일이 있다.’⁴¹⁾고 한다. 이로써 환암은 오히려 태고가 아닌 나옹의 嗣法 제자라는 주장이다.⁴²⁾ 그리고 환암은 『사고』에서 나옹, 무학에 이어 송광사의 주지로 취임하게 된 것을 보면 나옹과 환암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

37) 1910년 당시 유일한 종단인 圓宗의 이회광 종정이 일본의 조동종과 연합할 것을 협의하자 이에 반대하여 1911년에 새로 만든 것이 임제종이나 1년 뒤에는 사라지게 된다.

38) 태고법통설을 반대하는 논문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영태, 「朝鮮 禪家の 法統考」(『불교학보』22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5) 또는 법산 「曹溪宗에 있어서 普照의 위치」(『보조사상』제8집, 불일출판사, 1995), 종범 「朝鮮時代に 禪門法統說에 關한 考察」(『중앙승가대논문집』1,)

39) 彦機, 『鞭羊堂集』권2(『한불전』, p.253) 또는 「西山行蹟草」

40) 성철 『한국불교의 법맥』(장경각, 2001, p.19)

41) 종범, 앞의 논문, p.47

42) 김호탄 『고려말나옹의 선사상연구』(민족사, 1999, pp.198~204) 또는 종범, 앞의 논문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태고법통설에서 환암혼수의 제자라는 구곡각운은 수선사 제13세 覺眞국사의 제자 拙庵衍暉의 법을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색의 남원 「勝蓮寺記」⁴³⁾에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사고』에서도 각진복구-졸암연은-구곡각운으로 전법의 사실이 나타나 있다. 이상의 사료를 통해서 보면 태고법통설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 마무리하는 글

송광사 법종의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고려와 조선시대 선종의 전개를 개괄하여 보았다. 한국불교사 속에서 이 둘의 관계는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선종의 전개과정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 말 도의국사에 의해 선법이 전래된 후 고려 태조 무렵에 형성이 완료된 9산선문은 어느 시기 이후부터 한결같이 조계종이라고 불리었다.

둘째, 고려 중기 대각국사의천에 의해 천태종이 성립될 때 9산선문의 많은 승려들이 개종함으로써 조계종은 큰 위기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9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이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 중 사굴산문 계열의 보조국사가 수선사에서 정혜결사를 전개함으로써 선교일치에 따른 간화선의 전통은 한국 선불교의 특징으로 자리잡

게 되었다.

넷째, 고려 말 몽산 선풍의 도입으로 '悟後印可'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자 많은 선사들이 원나라에 들어가 임제종계열의 법을 전래하게 된다. 즉 태고보우는 석옥청공의 법을, 나옹혜근은 평산처림(또는 지공)의 법을 받아오게 된다.

다섯째, 고려 불교의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다. 고려 말 태고보우는 원융부를 설치하여 정치적인 논리로 교단을 정화하고 통합하려고 하였으나 성과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 조선시대 신유학이 정치, 사회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불교는 암흑기로 접어들어 산중불교화하게 된다.

송광사 법종의 추이는 수선사의 전성기와 침체기로 나누어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송광사 전성기의 법종 변화를 보면 고려 말 최씨무신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조국사는 중앙 정부와 멀리 떨어진 송광사에서 순수하게 종교적 목적으로 정혜결사를 시작하여 지방 향리층과 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5여명의 대중을 지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선사 제2세 진각혜심에 이르러서는 최우와 중앙의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서 수선사가 번창하게 되었지만 본래 정혜결사의 가풍이 약간 퇴색한 듯 보인다.

한편 제3세 청진국사, 제4세 진명국사, 제5세 원오국사에 이르기까지는 중앙의 정치세력과 더욱 밀착되어 수선사가 경제적인 면에서나 대

중의 수에 있어서 엄청나게 번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발전은 제6세 원감국사에까지 연결된다.

다음은 수선사의 법종이 쇠락하는 이유와 그 시기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수선사가 쇠퇴한 주된 이유는 원나라 간섭기에 이르러 가지산문이 부각되면서 수선사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신유학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실덕한 불교교단은 쇠퇴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수선사 침체기 법종의 변화과정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사고』에서는 '조계종계열'과 '임제종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조계종계열은 사굴산문의 수선사계열로, 임제종계열은 고려 말 중국 임제종계열의 법을 전래한 태고와 나옹의 계열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계열의 분류에는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9산선문의 전등법계는 오늘날의 개념인 嗣法에 의한 전등이나 宗脈과는 다른 것으로 출가한 師法 관계를 나타내는 출신 산문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초로 태고법통설을 주장한 것은 편양언기의 「西山行蹟草」등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고』에서도 각진국사복구-졸암연은-구곡각운으로 전법의 사실이 나타나 있다. 태고법통설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태고보우와 환암혼수, 환암혼수와 구곡각운의 전법 수수 사실 관계이다. 定慧社

43) 『牧隱集』(종범 『조계종사자료집』, p.345)

대웅보전大雄寶殿의 벽화

편집실

한국의 사찰에서 벽화는 탕화幀畵와 함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불교 문화재 가운데 하나이다. 이 불교벽화는 불교의 법수法數를 불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불교가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념理念의 정수를 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불교경전이나 논서論書들이 문자를 알아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데 비해 문자를 모르더라도 가르침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예로부터 교계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던 방편 중의 하나이다.

불교벽화의 기원은 경전에서 전해 오는 바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가 동산을 부처님께 보시한 후 어떤 장식이 좋을까 고민 끝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림으로 꾸미라는 말씀을 따르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역시 불교 벽화는 사찰을 꾸미고 단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불교가 국교로 공인된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란이나 화재로 소실되고 세월의 풍화 속에서 사라진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금껏 전해져 오는 불교벽화들은 대부분이 조선시대에 개채 되었거나 새로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성과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벽화는 다른 불교문화재와 달리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호부터 '정혜사' 지에서는 송광사에 산재散在해 있는 불교벽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 시간을 통하여 불교벽화로의 관심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그 첫 시간으로 대웅전 내의 벽화를 소개해본다. <편집자 주>

대웅전을 둘러보면 신중단 쪽부터 조사단 까지 곳곳마다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실감나는 벽화들이 있다. 이들은 사성제 고집멸도苦集滅道에 대한 일체의 구성들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신중단부터 법당 좌우 출입구를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벽화들이다.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후 BC 528년에 바라나시 근처에 있는 녹야원鹿野苑에서 중도적中道的 입장에서 현실 판단과 이상에서의 지평을 열어 보이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신다. 즉 사성제가 그 내용이며 가장 근본적인 불교의 기초교리가 된다.

첫째, 고성제苦聖諦. 우리 인생의 현실이 고타라는 것으로 경전은 8가지 괴로움(八苦)을 분류하고 있다. 즉 인간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노병사生老病死와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구부득고求不得苦),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애별리고愛別離苦), 미운 것과

만나는 것(원증회고怨憎會苦)이 그것이다. 또 부처님께서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라고 말씀하셨다. 연기된 것이란 다섯 가지 집착다발을 말하는데 그 다섯 가지 집착다발이란 물질의 집착다발(색色), 느낌의 집착다발(수受), 지각의 집착다발(상想), 형성의 집착다발(행行), 의식의 집착다발(식識)을 말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집착다발에 욕망하고 집착하고 경향을 갖고 탐착하는 것(오온성고五蘊盛苦)까지를 포함하여 여덟 가지의 괴로움을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다.

불교에서 ‘괴롭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인생에서의 행복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정신적인 여러 형태의 행복을 인정하셨다. 그러한 행복을 인정하고 찬양한 후, 그것들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쉽다’ 라고 하셨다. 즉 무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괴롭다는 속성을 가진 의미에서 괴로움인 것이다. 이를 표현한 벽화로 신중단 좌측에 있는 벽화를 볼 수 있다.

불교에서 ‘괴롭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인생에서의 행복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정신적인 여러 형태의 행복을 인정하셨다. 그러한 행복을 인정하고 찬양한 후, 그것들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쉽다’ 라고 하셨다. 즉 무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괴롭다는 속성을 가진 의미에서 괴로움인 것이다. 이를 표현한 벽화로 신중단 좌측에 있는 벽화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죽어서 장례를 하는 것과 늙어서 병든 노인,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 그리고 늙어서 고통 받는 노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것을 통해 불교의 기초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고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괴로움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로 제거하고 싶어할 뿐이다. 괴로움의 진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 “괴로움이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있다’ 이다.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과 번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단지 ‘이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운 느낌’ 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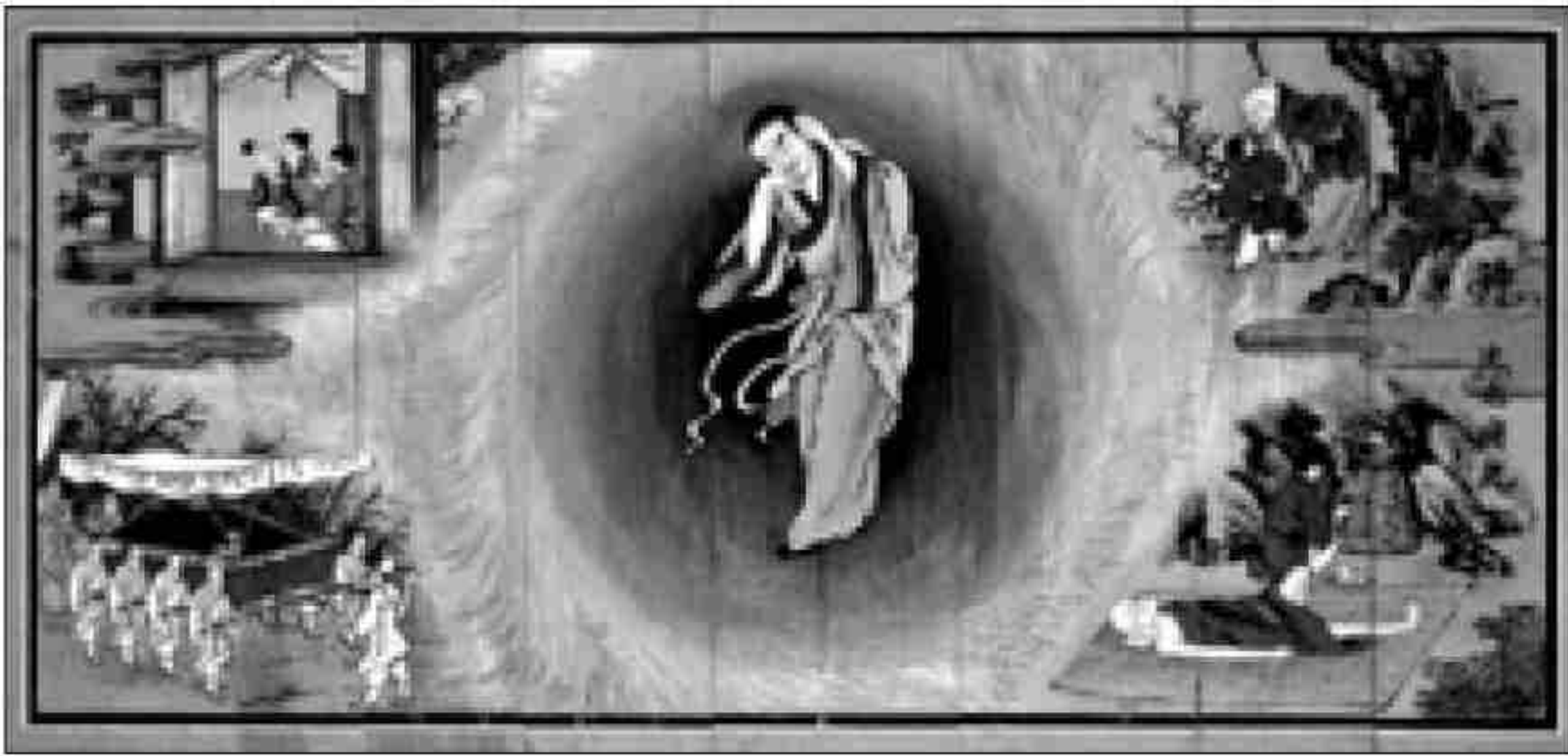
둘째, 집성제集聖諦.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는 괴로움 발생의 이유에 대한 언급이다. 집集이란 말은 원래 ‘결합하여 일어난다’ 는 뜻으로 한자의 뜻대로 ‘모은다’ 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집기集起’ 라고 하면 뜻이 더 잘 통할 것이다.

이는 연기의 의미와 매우 가까운 말이다. 경에서는

집성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것(集)은 재생再生의 원인이 되는 갈애渴愛로서 격렬한 탐욕에 묶여 있으며, 여기저기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선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욕애慾愛(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유애有愛(존재 그 자체와 형성에 대한 갈망), 무유애無有愛(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등이다.’ 인간에게 온갖 괴로움과 윤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탐욕·욕망·갈애·열망 등이다.

그러나 연기법에서 보았듯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절대적인 원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고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탐욕도 다른 것, 즉 느낌(受)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이 느낌은 접촉(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면서, 결국 연기적 의미의 집(集, 緣起)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무지 속을 헤매는 우리를 위해 벽화에는 무상의 가르침을 표현한 게



첫째, 괴로움에 대한 진리(고성제苦聖諦)



둘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집성제集聖諦)

송 하나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시생멸법是生滅法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

이 계송은 부처님 전생의 설화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께서 아득한 과거에 설산동자라는 이름으로 해탈의 도를 구하기 위해 고행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제석천帝釋天은 이와 같은 구도의 뜻을 시험해보려고 나찰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설산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설산동자에게 가까이 가서 “제행무상諸行無常하니 시생멸법是生滅法”이라는 계문偈文의 반만 읊어 주었다. 이 계송을 들은 설산동자는 비길 데 없이 기쁘고 환희로웠으며 깨달음의 등불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설산동자는 그 나머지 반마저도 들려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나찰은 자기는 배가 고프니 수도자를 잡아 먹게 해준다면, 나머지 구절을 들려준다고 했다. 결국 설산동자는 나찰에게 승낙을 하고 계송을 듣는다. “생멸멸이生滅滅已이면 적멸위락寂滅爲樂이니라” 그리

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으려 하자, 나찰이 본모습인 제석천으로 돌아와서 그를 살려준다.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무상하니
시생멸법是生滅法 이것은 생멸의 법이다.

생멸멸이生滅滅已 생멸이 다하면
적멸위락寂滅爲樂 적멸의 즐거움이 된다.

셋째, 멸성제滅聖諦.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는 집제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다. 고의 원인이 애, 탐 등의 집기라면 무명의 멸진을 통해 괴로움의 현실을 극복, 초월한 뒤에 당연히 오게 되는 희망적인 비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굳은 약속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강한 약속이야말로 불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 짓게 한다. 멸滅은 열반이다. 욕망의 세찬 불길이 꺼진 상태, 바로 깨달음의 경지이다.

사람들은 한평생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살아간다. 배고픈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밥을 먹고, 병든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병원에 간다. 가난의 고통으로 인하여 돈을 벌고, 세상에 무시 받고 천대받지 않기 위해 공부한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두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거의 실현하지 못한다. 아니 그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단지 욕망의 충족으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다.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송광사 대웅전의 조사단 탕화 뒤쪽 벽면에는 괴로움의 소멸을 그린 벽화가 있다. 넓은 바다의 수평선 끝으로 떠오르는 태양과 천상의 선녀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그리고 벽화 오른쪽을 보면 상락아정常樂我淨이란 글귀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삶의 목적인 괴로움의 소멸인 것이다.

상락아정常樂我淨이란 열반에 이른 부처님의 네가

지 덕상을 말한 것이다. 상常은 열반의 경지는 생멸변천生滅變遷함이 없어 항상하다는 덕상을 말하는 것이며, 락樂은 생사의 고를 여의어 무위안락無爲安樂한 덕상, 아我는 망집의 아我를 여의고 대자재가 있는 진아眞我를 말함이며, 정淨은 번뇌의 더러움을 여의어 담연청정湛然淸淨한 덕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네 가지 잘못된 견해와 비교된다고 볼 수 있다. 항유성恒有性이 없는 것을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생노병사의 과정 중에 잠깐의 쾌락을 진실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오온의 일시적인 결집을 진이라고 여기는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범부의 망집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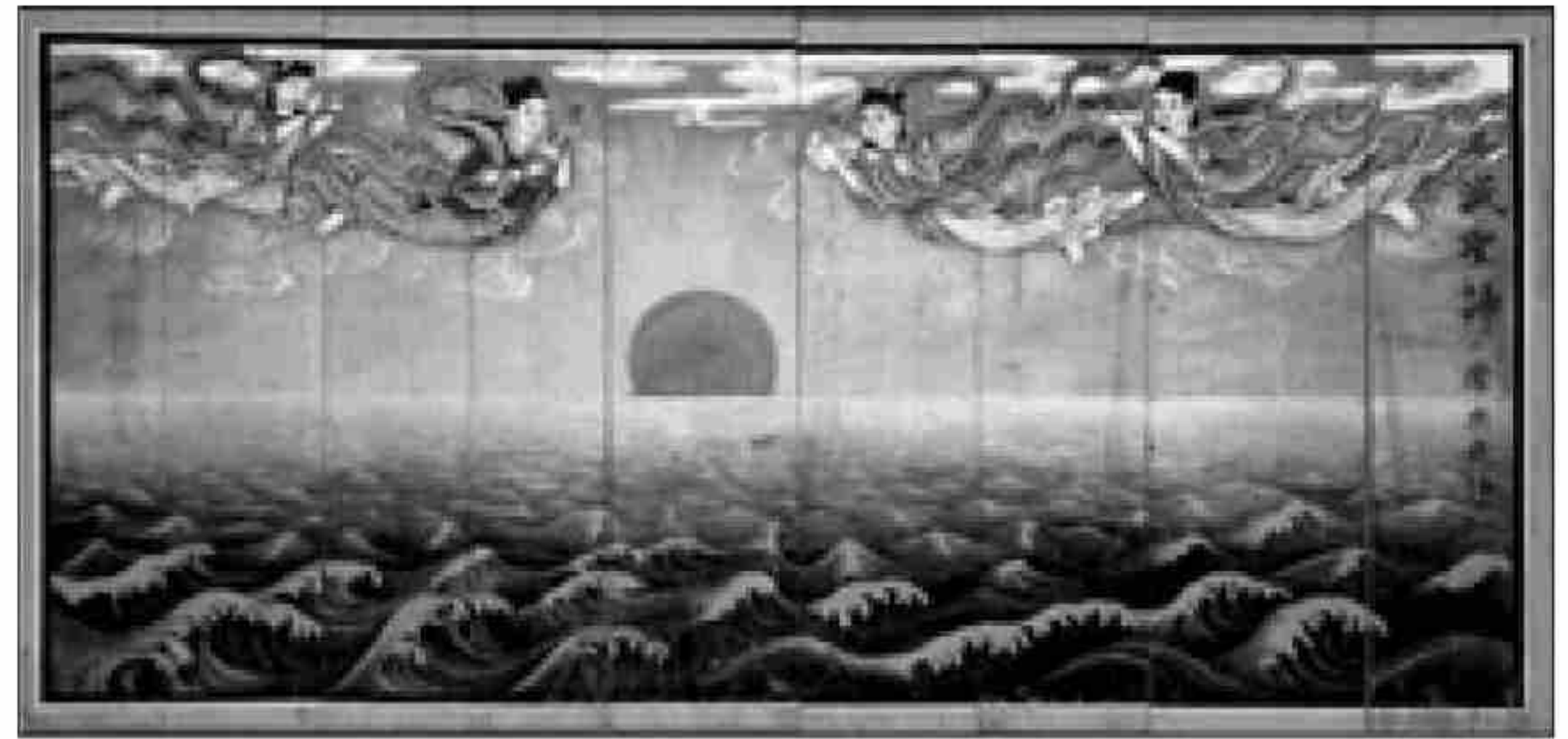
만약 범부중생들이 오온이 치성한 보고 듣고 하는 등의 육근으로 이 네 가지 부처님의 덕상에 계합하고자 한다면 먼저 생멸하는 근본부터 제거하고 생멸이 없는 원만하게 담연한 성품을 가지고 수행해야 부처님과 같은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경전에서의 가르침이다.

쉽게 말해서 중생들이 시작도 없이 이어온 온갖 시비 잡념의 습을 끊지 않고 도리어 그 허망한 망집을 채우려고 하니 부처님과 같은 열반처에서 상락아정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렇듯 이 벽화는 우리가 밝은 지혜로 항상 상락아정에 머물기를 바라는 염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도성제道聖諦.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함에 있어 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원인을 알아 낸 다음, 건강한 상태의 정상적인 표준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강구하듯이, 고, 집, 멸을 알고 난 뒤 멸에 이르는 바른길을 제시한 것이 도성제이다. 즉 도성제는 열반에 이르는 실천수단으로써, 그 방법으로 여덟가지의 수행 방법을 말하고 있다.

이 팔정도八正道는 정견正見(바른 견해), 정사유正



셋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멸성제滅聖諦)



넷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도성제道聖諦)

思惟(바른 사유), 정어正語(바른 말), 정업正業(바른 행위), 정명正命(바른 생활), 정정진正精進(바른 노력), 정념正念(바른 의식), 정정正定(바른 명상, 바른 정신통일)으로 단순히 말로 끝나기 쉬운 종교의 목적을 구체적인 실천수행으로 제시한 위대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대웅보전 왼쪽 출입문 뒤의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는 수행자와 그 옆으로 걸어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벽화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나와 비구들이 긴 여정의 걸음을 같이 걸어온 것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발견하고 꿰뚫어 통찰하기 위해서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그것은 바로 사성제이다”〈디가 니까야, Sutta 16〉

“이것이 내가 설한 전부이다. 왜 그것을 설했는가. 그것은 이익을 주고, 성스러운 삶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쌍웃따 니까야 LVI, 31〉 **定慧社**

아랫반의 마음

승찬乘贊 | 치문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남자들이 모여드는 송광사 사자평. 한철 살고 일주문을 나서면 자긍심으로 저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 송광사. 삭목일에는 대교반 스님들도 아랫반 스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삭발하는 정혜사 큰방. 백여명이 훨씬 넘는 스님네들이 한 방에서 죽비 소리에 똑같이 공양하고 어른스님도 이제 갓 출가한 스님도 다 같이 공양을 마치는 정혜사 큰방. 평상심, 평등심, 좋은 것, 싫은 것, 기쁜 것, 슬픈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이 모두가 없다는 자리에서 중생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저에게 참회와 칭찬이 어우러져 마음의 동요는 많았습니다.

작년 동안거 사미반 시절에는 윗반스님들로부터 많은 경책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지적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사자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어미 사자가 매몰차게 몰아치는 그것과 같았고, 겨우 언덕을 넘어서면 또다시 절벽에 밀어뜨리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기를 한철, 추웠던 동안거를 지내고 이젠 치문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심하지 않고 수순하지 못했던 저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삭발염의하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첫 번째 문이라고 하는 치문반. 새로 방부들인 도반스님들과 비좁은 지대방에서 잠시 휴식을 가질 때면 마치 그 모양새가 모이를 찾는 병아리 떼 같습니다.

이제 갓 출가한 초심자들에게는 평범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곤 합니다. 아마 공사 시간이 그런 때이겠지요. 본래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전달 사항과 지적, 참회 발표 등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의 공사는 또 어떻게 될까, 무사히 지나갈까, 아니면 뜨거운 공사시간이 될까, 내심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도반스님들의 바람은 그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공사시간입니다. 대중스님들의 발표에 이어 찰중스님의 전달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찻잎 따는 울력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두 소임자 스님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안거 해제 때까지 신심을 내서 대중스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시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순간 치문반 수두 소임자 노장(?)스님들은 모두 동시에 합장 저두를 했고 뜻밖의 칭찬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없다는 수행자의 길에 약간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 칭찬은 우리 수두 소임자 스님들에게 각자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치문반 스님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치문 생활을 항상 하심하고 수순하며 대중스님들을 시봉하는 자세로 정진하신다면 자신의 수행 농사는 물론 대중생활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 듯 싶습니다. 어눌하고 서툴지만 한 말씀 올렸습니다. **定慧社**



강원의 하루

혜연慧然 | 치문

탁!탁!탁! 둔탁한 죽비 소리와 함께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부랴부랴 출입문 열고 이부자리 정리하고 아직 감긴 눈을 비벼 뜹니다. 멀리 도량석 목탁 소리를 확인하고서야 조용히 해우소로 갑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도반 스님네들... 이제 양치하고 만의, 장삼 수하고 법당으로 부처님 모시러 갑니다.

이렇게 강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저는 법당으로 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신심을 다해 한배 한배 몸을 낮추는 행자님들을 보면서 지난 8개월간의 시간도 돌이켜보고, 늦게 나온 도반스님들 편찬 섞인 눈치 주며 웃어보기도 합니다. 행자시절엔 한 달만 있다 가야지 하며 하루 보내고,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며 한 달 보내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지금은 승복 입은 스님의 모습입니다. 가끔 행자님들 마주치며 이것저것 이야기도 건네 보고 싶지만 말 한마디라도 안 건네는 것이 행자님들 편하게 해주는 도리라 생각하며 지나갑니다. 아직까지도 승복 입은 모습이 어설피고 걸음걸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서툰 초보 스님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누가 뒤에서 “혜연스님”하고 부르면 낯설기만 한 것이 중물을 단단히 들여야 할 듯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봄산철 바쁘게 살아보아서인지 강원생활이 어느덧 몸에 익었나 봅니다. 가끔씩 지대방에서 도반 스님들과 담소도 나누고 장난도 치는 것이 제법 재미있어집니다. 우리 도반 스님들, 지대방을 가득 채우고 제각기 자신의 개성대로 짧은 휴식을 만끽합니다. 차를 마시며 운치부리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대중 울력 후 누워서 피곤함을 달래는 스님도 있습니다. 지금은 후원 개울가를 건너서 파릇한 녹엽들이 여름 햇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안거 해제 때가 되면 매미들이 목청을 돋우겠지요.

하안거가 무덥고 습하다고, 힘들 거라고 엄포를 놓으시던 윗반 스님들 말씀에 벌써 주눅 들기만 합니다. 여러 도반 스님들과 무더운 올여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조금 후면 공사시간, 긴장이 초절정에 다다른 시간이죠. 제발 오늘은 지적 안 당하고 윗반 스님들로부터 경책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만 앞섭니다. 하지만 처음 머리 깎은 신심으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해우소 옆으로 돌아가는 물소리가 참으로 맑습니다. **定慧社**

대중생활

혜문慧門 | 치문

조금은 늦은 나이로 출가하여 송광사 강원에 방부를 들인지도 어느덧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익히고 행한 생활들이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방부를 들이기 전에 말로만 듣던 송광사 전통 강원의 대중생활을 실제로 느껴보니 무엇이든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것이 있겠는가 하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회경험도 있고 하니 쉽게 적응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강원의 대중생활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생활이 몸에 배지 않은 탓으로 대중생활에 있어 속가의 오래된 습관(버릇이라고 해야 할까요?)이 남아 있어서 많은 실수 속에 긴장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또한 윗반스님들의 많은 지적과 탁마가 참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옛 속담에도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아직은 고쳐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선하향, 차수, 묵언, 합장저두 등 치문반으로서 지켜야 할 습의 사항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도반스님들과 지대방에서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행익, 습의 도중에 무척이나 재미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지대방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도반 스님들의 갖가지 실수로 한바탕 웃고나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익숙해 왔던 모든 것들은 버리고 지금부터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을 익숙하게 해야 한다"는 강사스님의 말씀도 실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수행의 길로 접어든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중생활에 친숙해져야 하며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만큼 마음도 건강해지고 매사에 진실하며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태하지 않게 제 스스로를 꼭 붙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생활의 큰 의미를 되새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앞으로의 대중생활에 있어 예의와 위의를 버리지 않는 참다운 수행인이 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定慧社

앗! 나의 실수

신해信海 | 사집

이제 사집반을 올라오고 난 후 강원에서의 두 번째 하안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난 원래 서기장으로 봄산철 부터 하안거까지 6개월 소임을 마치는 과정이었지만 반 내의 사정상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대응전 부전이라는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 집전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자부하는 터라 처음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봄산철 방학 때부터 미리 집전을 맡아 적응기간으로 삼아 연습을 잘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학 복귀 후 3일간은 조용히 무난하게 소임에 충신했다. 그런데 사건의 전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하안거 결제날 새벽예불 때 그만 수마(수면욕)에게 지배를 당해 졸고 있던 나, 목어가 내려가고 운판이 내려가고 마지막 다섯 망치를 치는 순간 태연하게 경쇠를 잡아서 운판 세 번째 망치에 경쇠를 쳐버린 것이다. 치고 난 후 다시 잠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 후에 나를 지배하던 수마는 사라지고 갑자기 나의 뒤통수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에게 대한 따가운 시선집중이 느껴졌다. 이것으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만 어간에

계신 도감스님은 아예 예불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신 것이다. 후! 후! 너무 죄송스러웠다. 그렇게 그날 새벽예불은 대중스님들이 모처럼 잠이 깬 활기찬 새벽예불이었고 나는 그날 밤 공사시간에 자참 발표를 했다. 그런데 15일간의 참회 면제가 있어서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십시오”라는 찰중스님의 넓은 아량으로 그날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섭섭하겠는가. 그 다음날 굳게 마음먹고 새벽예불이 지나고 사시예불도 지나고 저녁예불을 하고 있었다. 역시 어제의 실수가 있어서인지 바짝 긴장한 탓에 무난히 집전할 수 있었다. ‘팔정례’ 도중 네 번째 구절을 하고 있었다. “지심귀명례 대지문수사리보살~~” 이 뒤에 있는 구절 “대행보현보살” 끝에 다시 경쇠를 치고 말았다. 앗! 나의 실수, 어째서 이런 일이... 두 번째 화살을 맞았다. (여기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심귀명례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이 끝난 후 일어나는 경쇠를 쳐야 하지만 저는 “대행보현보살”이 끝난 뒤에 경쇠를 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서 경쇠를 치자마자 나는 일어났지만 대중스님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사집반은 일어났는데 대교, 사교, 치문반은 일어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던 끝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다. 역시 그날 밤 공사시간 전에 찰중스님에게 “자참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따가운 경책 대신에 “요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내일 있을 참회 때기 울력 대신 수석정에서 집전 연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두 번째 실수도 무난히 넘어갔다. 다시는 실수를 연발하지 않도록 수석정에서 참회의 집전연습을 하였다. 대중스님들을 연달아 두 번이나 어지럽히는 실수를 하고도 보름 뒤에 나의 실수는 다시 터지고 말았다. 그날도 새벽예불이었다. 이번에는 다게를 하고 있었다. “아~금 청정수 변위 감로다 봉~ 땡!” 벼락을 맞았다. 잠잠하던 나는 다시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번엔 봉헌에서 원래 경쇠를 치면 안 되는 것인데 착각하고 한 타를 친 것이다. ‘아~~!’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왜 또 이런 실수를 한거야’ 하며 내 자신을 수없이 나무랐다. 이제 대중스님들 볼 낯이 없었다. 지금 이 글을 쓴 오늘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번엔 세 번째 화살이 아닌 사형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오늘 자참을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참회 면제 기간도

끝난지라 오늘 공사는 아주 뜨거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모두들 내가 살아남기를 기도해주길 바라며 나의 실수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만약 오늘 공사가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면 송광사 강원 사집반 신해스님께 물어보시길... 만약 신해스님 찾기가 힘들다면 새벽, 사시, 저녁 예불 때 가운데에 앉아서 경쇠, 목탁을 치는 스님이 본인이다. 그리고 약 두 달 남짓 남은 대웅전 부전 소임을 아무쪼록 별 탈 없이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여기서 글을 줄인다.

PS - 찰중 스님의 배려 덕으로 저는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定慧社



백양사 율원 율주 동성혜권東星慧權 스님



혜권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처소(담양 용흥사)

‘정혜사’ 지에 실리는 글 가운데 편집진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꼭지는 아무래도 ‘정혜탐방’ 이 아닌 가 싶다. 어른스님을 직접 찾아뵈어서 취재를 해야 하기에 만나 뵈실 스님의 당일 일정에 변동이 있거나 건강의 이상으로 무산되기도 하고, 스님께서 한사코 약속한 취재를 갑작스레 거부하기도 하기에 말이다. 이번에 뵈고자 했던 백양사 율원의 율주로 계시는 혜권스님 역시 그러하셨다. 이번호 ‘정혜사’ 지의 어른스님 탐방취재를 어떤 분으로 했으면 싶은지 의견을 구한 편집진에게 송광사 강원의 많은 학인스님들이 혜권스님을 얘기했고 편집진 역시 스님의 수행력에 대한 얘기를 익히 들었던 터, 자연스럽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간해서는 외부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스님의 평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취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견 역시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뵈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전해드린 편집진의 의중에 의외로 손쉽게 용흥사 주지스님을 통하여 허락하신다는 연락을 주셔서 기뻐했다. 전례 없는 혜권스님에 대한 취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편집진은 무척이나 설레었지만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취재성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편집자 주〉

가람의 초입, 세월의 때를 입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거대한 석조여래불이 일행을 반긴다. 천년고찰이라는 담양의 용흥사, 불사가 한창인지라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고 해도 될 오전 9시, 분주한 일꾼들의 모습과 공사장비의 소음만이 정적을 일깨운다. 구한말 의병전쟁과 한국동란의 와중에 소실된 전각들을 복원하는 것이란다. 백양사의 말사로 거의 폐찰이었다고 하는 이곳은 부임하신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옛 모습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곳, 용흥사에 오늘 만나 뵈는 혜권스님이 계신다.

먼저 후원의 공양주 보살님에게 스님께서 어떻게 일상을 보내시는지 물어보았다. 혜권스님의 일상을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 “저는 무서워서 스님 곁에 가지를 못해요. 하루에 한 번 하시는 밤송이만큼의 공양을 하실 때도 허투론 한마디의 말씀도 안하시고 그저 공양만 하시니 무서워요. 그러나 오로지 기도와 정진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 환희심과 존경스러운 마음이 안날 수가 없지요.”

스님께서는 이곳에서 그렇게 정진하고 계셨다. 백양사 시절, 자그마치 일만일이라고 하는, 삼십년 가까이 되는 많은 날들을 산문을 벗어나지 않은 채 강의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기도로써 회향한 진득한 수행력이 성에 안차셨을까. 이곳에 오셔서도 또다시 기도와 정진으로 하루를 벗 삼고 계신 것이었다. 편집진을 숙연케 한 사

실 또 하나, 일흔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예불 시 두,세 시간의 정근으로 기도를 마치시고도 직접 용흥사의 모든 전각을 손수 청소하신다는 스님, 스님을 뵈러온 후학들은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공양주 보살님의 안내로 스님이 계신 처소로 향했다. 전에는 다실로 사용했다는 흙으로 외벽을 둘러친 스님의 처소, 현관 앞으로 나있는 기다란 복도의 초입에 서서 “울주스님, 계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했다. 이윽고 허리가 몹시 굽은 스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리고는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과 함께 편집진 일행을 잠깐 위아래로 훑어보신 후 내뱉으신 일갈 한마디, “돌아가!”

예상치 못한 낭패였다. 분명히 용흥사 주지스님 편에 스님과의 취재를 여쭙었고 그에 대한 허락 역시 확인했던 차 스님의 갑작스런 취재거부는 적잖이 당황스런 일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스님께서 뒤돌아서서 발걸음을 쫓아 무작정 스님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웃는 낯에 침 뱉을 수는 없는 법, 우선 웃는 얼굴로 다짜고짜 절부터 드렸다. 그리고는 우선 우리가 누구라는 소개의 말씀을 드렸다. 역정 난 얼굴로 듣고 계시던 스님께서 잠시 후 입을 여셨다.

“난 송광사의 학인스님들이 개인적으로 날 만나러 온다는 걸로 알았소. 책에 나가는 것인 줄은 몰랐지. 차후에 인터뷰 안한다는 연락을 별도로 했는데 전달이 안 된

모양이요. 난 책에 나올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니 그만들 가시게. 얼마간의 차비는 내가 드리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일어나 옆방으로 건너가셨다. 냉정하리만큼 단호한 스님의 태도는 간절한 읍소조차도 헛되리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았다.

서너평 정도 될까 말까한 스님의 방에 있는 것이라곤 낡은 장롱과 안에 입던 옷가지라도 들었음직한 라면박스 하나와 경상 하나가 전부였다. 스님들 방에서 손쉽게 보이는 그 흔한 다구茶具 하나도 없었다. 혜권스님께서 백양사 강원의 강주로 재임하실 때 송광사 강원의 도반인 학인스님 한 분이 직접 만나 뵈고는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났다. 그 학인스님이 혜권스님의 처소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온 것 역시 이날 편집진이 목도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단다. 학인스님들을 가르치는 강주임에도 몇 권뿐인 경전과 낡은 책상과 장롱뿐이더라는 것이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천정의 한쪽편으로 하늘이 보이더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정 옆의 벽이 터져 있었던 것이다. 한겨울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칠 것은 자명한 사실, 그런데도 스님께서는 난방조차도 허용치 않고 사셨다고 한다. 용흥사 후원 공양주 보살님의 말이다. “한겨울에도 난방을 안하고 사세요. 그리고 일흔이 넘은 나이인데도 모든 빨래를 손수 하시고 해우소까지 직접 청소하십니다.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상이 수행이 되고 부처님을 염하는 기도와 장좌불와하는 정진이 일상이 되었다. 까마득히 법랍이 낮은 강원학인스님들을 위해서 해우소의 오물 묻은 빗자루를 기꺼이 들었고 백양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혹시나 절집안의 허물이 보일까봐 직접 손걸레를 손에 드셨다. 체면을 생각하고 남의 눈을 의식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하심(下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딱히 쉽지 않는 일이다. 나이 탓, 건강 탓하며 자신의 게으러짐을 변명하기 쉽지만 스님은 여든이 멀지 않은 나이인데도 그런 것들이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모름지기 선지식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

헤드릴려고 해도 어려워서 말을 못 붙이겠어요, 남의 손 빌리는 것 용납도 안하시겠지만...” 절집에 사는 스님들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게으름도 피우고 편안한 것도 찾기 마련인 법, 더구나 스님은 기력이 모자라 더욱더 편안한 것을 찾기 십상인 일흔이 넘는 노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몸에 밴 청빈으로 기도와 정진이라는 수십 년을 지속한 일상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고 계신 것이다.

스님께 내몰려 그냥 나오기가 아쉬워서 처소 입구까지 쫓겨 나오다 시피 하면서도 소의경전과 참선과 염불선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쭙었다. 극히 짧은 단답형 대답, “소의경전은 『금강경』이고 각각의 수행방편은 근기 따라 하는 거지...” 이 즈음에서 정혜사 편집진은 스님을 그만 괴롭혀 드려야 할 것 같았다.

취재는 실패했어도 스님께서 사시는 모습을 직접 본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자위하면서 2년 전까지 생활하셨던 백양사를 찾았다.

1500년의 긴 시간을 이겨낸 백

제시대의 고찰인 고불총림 백양사, 혜권스님은 이곳에서 삼십 년을 훗날 넘긴 오랜 세월을 수행 정진하셨다. 강원학의 강주로 오랫동안 재임하셨는데 그때의 모습은 어떠셨을까. 스님께 강의를 듣고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강원학인스님을 한 분 만났다. 그 스님이 전해준 혜권스님과 일화 한 가지... 어느 날 혜권스님께서 몸살로 드러누우셨단다. 그래서 곁에서 스님 시봉을 해드리면서 병간호를 했는데 며칠을 앓아 누우셔도 빨래감 하나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 와중에도 몸을 일으켜 직접 빨래를 하신 것이었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약하나 드시지 않고 오로지 설탕물만 드시며 병치레를 견디어 내셨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보고 한없이 감동받았다고 하는 학인스님은 이야기 도중에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 나는지 잠시 눈물을 비추기도 했다.

혜권스님께서서는 서른살을 훌쩍 넘긴 늦깎이로 불문에 발을 들어놓으셨다. 1973년에 도견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하시고 이듬해인 74년에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셨다. 그리고 1975년에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마치셨는데 재학 시에 성적이 우수하여 월반을 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강원을 졸업하신 후 만암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던 백양사로 오셨다. 이 당시 백양사에서 강의하고 계시던 각성스님으로부터 『화엄경』을 사사하고 누군가 말하길 스님께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구사론』, 『인명론』 등을 홀로 공부하신다. 그 이후 백양사의 산문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30년을 훌쩍 넘긴 기간을 오로지 백양사에서 생활하시는데 하루 네 번의 기도와 장좌불와를 번갈아 하시며 나머지는 강의 등으로 보내셨다고 한다. 만일기도의 회향은 바로 스님의 이러한 철저한 자기절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렇듯 혹독한 수행의 결과인지 스님의 허리는 심하게 굽어져 있다.

수행과 일상이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인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듯하다. 수행에 대한 용심用心이 지나쳐 일상생활을 멀리 내치기도 하고, 일상에 매몰되어 출가자로서의 본분을 잊기도 하기에 말이다. 그러나 스님에게는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상이 수행이 되고 부처님을 염하는 기도와 장좌불와하는 정진이 일상이 되었다. 까마득히 법랍이 낮은 강원학인스님들을 위해서 해우소의 오물 묻은 빗자루를 기꺼이 들었고 백양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혹시나 절집안의 허물이 보일까봐 직접 손걸레를 손에 드셨다. 체면을 생각하고 남의 눈을 의식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하심下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딱히 쉽지 않는 일이다. 나이 탓, 건강 탓하며 자신의 게을러짐을 변명하기 쉽지만 스님은 여든이 멀지 않은 나이인데도 그런 것들이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모름지기 선지식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수행력 때문인지 2003년에 입적하신 전 백양사의 방장이셨던 서옹스님은 혜권스님을 대단히 친애하셨다고 한다. 혜권스님 역시 서옹스님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마음깊이 존경하고 있었다고 한다. 두 분에 관한 일화 하나, 서옹스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즈음, 혜권스님을 찾으신다. 그러나 평소 행전을 차고 다니던 혜권스님은 이날도 행전을 매느라 서옹스님의 방에 조금 늦게야 당도했고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는데, 매달린 풍경소리남과 동시에 서옹스님은 좌탈하셨다고 한다. 선지식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후학들은 이에 대해 이런 저런 추측을 해댄다. “왜 서옹스님께서 혜권스님을 부르셨을까. 혹시 법을 남기시려 하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런 추측들은 출가자의 본분사와는 거리가 먼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눈먼 후학들의 입방아일 뿐이다. 혜권스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다. “서옹스님의 의중을 내가 어떻게 알아..”

공양 이외에 일체의 간식과 다각을 안하시고 편찮으셔도 오직 보리차와 설탕물로 견디어 내시던 스님께 요즈음 자그마한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나이 탓, 수행 탓으로 쇠약해진 몸의 건강을 위해 그나마 마시길 허락한 것, 바로 ‘요구르트’란다. 요즈음 절집안 스님들도 흔하게 마시는 요구르트 한 병도 스님에게는 심사숙고의 대상일 뿐이다.

지금 시대, 과거의 절집에 비해 여러모로 여유가 생긴 탓인지 알게 모르게 살림살이가 헤퍼지기도 하

지만 스님은 그저 청빈한 출가자의 모습에서 요지부동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어려워 자칭 무애행無碍行이라고 둘러대는 일부에게 말없는 경책을 가하는 스님의 삶은 지금의 세대에 더없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한없이 검소하고 무한히 자신을 낮추면서도 스스로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한사코 사양하시는 혜권스님, 두타행頭陀行이란 그 소박한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삼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당연 하리라.

비록 많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지는 못하였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에 답이 되어주신 스님의 모습은 오히려 애써 말에 얽매인 대답을 기다려 취재하려 했던 후학들을 몽매함에서 깨어나게 했다. 황급히 쫓겨나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조차 드리지 못한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스님의 모습은 영원토록 우리의 귀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定慧社**

(혜권스님의 완강한 인터뷰 고사로 인해 사진촬영을 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성혜권東星慧權스님은 1973년 도견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하시고 이듬해인 1974년 월하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하시고 1975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마치신다. 이후 고불총림 백양사로 오셔서 죽 수행하신다. 백양사에서 30년이 넘는 일만일을 회향한 기도는 많은 후학들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수행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백양사 강원학의 강주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담양의 용흥사에서 수행하시며 백양사 울원의 울주 소임을 맡고 계신다.

유구무언 有口無言

글·그림 상국床國 | 사집

은 이어도 너어리?



대부분의 초점을 받고 타당성을 개입해 가짜 뉴스도 생겨서
 개명율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빙글이를 먹게 되었다.



서책

시명是明 | 사집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비치지 못한 속내가 있어 몇 번이고 글로써 띄울까 했으나 그때마다 또다른 근심 안겨 드리는 듯해서 펜을 거두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겨울, 김장 울력하는 모습을 TV로 우연찮게 보시고선 백여 명 가까운 스님네들 틈에 있던 아들 모습을 단번에 알아 보셨다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금니 깨물고 제 배 아파 낳은 놈인데 머리 깎고 옷 바꿔 입었다고 몰라보겠느냐”는 말씀에 울컥하는 것이 있어 연신 헛기침만 해댔더랬죠. 집 소식, 사람 소식 한창이신데 차 시간 핑계에 도반스님 기다린다는 핑계에 이르게 통화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도 실은 당신 목소리 들으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 버리는 것을 전들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제는 봄이 간다는 작별인사와 여름이 왔다는 전입신고를 갑작스런 소나기가 대신하였습니다. 고향에선 지금쯤 그 비릿한 바다 냄새가 물으로 올라올 때이겠지요. 여기 조계산 자락에도 여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늘의 새들은 목을 뽑아 울어대고 이 땅의 풀꽃들은 고개를 들어 햇살 받는, 그리하여 다가올 눈부신 열기 속에서 제 본연의 색깔 드러내려 분주히 그 모양새 다듬는 중입니다.

그렇게도 걱정하셨던 건강은 한결같은 염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이른 봄부터 별이나 쏘일까 해서 두어 번 다녀온 걸음이 그 재미를 붙여 이제는 일상 속에 어엿한 한자리로 차지했습니다. 여기선 포행이라 부르는데 아마 산책쯤으로 여기시면 별 무리 없을 듯합니다. 하기가 요즘처럼 꺼리가 많은 세상, 밖에서 보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희다 못해 창백한 우리 스님네들 얼굴을 햇빛에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아니 소중한 우리의 꺼리입니다.

포행은 단순하고 원시적인 방법에 매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걸음새가 비슷한 도반들과 짝을 지어도 좋겠지만, 아침 공양 직후 잠시 잠을 빌려 가는 그 걸음이 일품입니다. 요즈음은 제법 두 복사뼈 주위에 힘이 올라붙는 느낌이 납니다. 실은 저번에 보약이라도 지어 보내신다 하기에 한사코 사양한 것도 다리에 힘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이로 인해 다가올 폭염의 테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객기가 발동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허락된 거리를 가야하는 그래서 어찌면 쉬이 권태로울 수도 있는 그 길을 마치 오늘이 처음인양 하얀 고무신 신고 먼지바람 일으키며 신나게 내달입니다.

기와 사이에 진흙 없어 만든 이제는 세월의 동화 속에 조금씩 옛 견고함이 퇴색해가는 ‘화엄전’ 담벼락을 돌아서면 제 놈들 쉬흔 자의 큰 키 나란히 하고 양쪽으로 뻗뻗이 늘어서 하늘을 가린 채 위풍당당 그 위용 자랑하는 대숲을 만납니다. 푸르디푸른 마디마디 곧추 세우고 좁은 공간 촘촘히 제 구실 다해내는 소박함은 흡사 이 터를 빌리어 살아가는 우리 스님네들의 모습입니다.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라도 한줄기 흘러내리면 대숲은 이내 파도가 됩니다. 휘영청 쓰러질듯 저이들 살갓 비비어 대며 썩아아~ 썩아아~ 하얗게 부서지는 물거품은 없지만 소리만큼은 고향 앞바다에서 들던 바로 그 파도소리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오늘처럼 바람이 전혀 일지 않는데도 댓잎들의 날갯짓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비어있는 몸통 속에 바람 한 줌 몰래 간직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제처럼 소나기라도 두어 번 이 도량을 해코지 하고나면, 얇은 비닐창문 떼어낸 듯 그 청명한 창공 아래 잘난 것 못난 것 할 것 없는 이 땅의 꽃나무들 그 얼굴에도 함박웃음 가득입니다. 현기증이라도 날 것 같은 이 찬란한 역동! 얇디얇은 고무신 바닥 아래 전해져 오는 대지의 피부는 장대같이 내린 어제의 그 소낙비 탓에 여기저기 짙

히고 닳아져 불쌍사나운 상처투성이입니다. 봄별에 풀썩이 자라듯 흙 한 줌 자라나와 그 아픈 자리 새살 돋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천에 자연을 두고 언제나 그리운 이 자연은 정직하고 때묻지 않은 우리 눈푸른 젊음들의 아지트입니다. “난장難將 촌초심寸草心 보득報得 삼춘휘三春輝(지극히 작은 자식의 마음으로 봄별 같은 부모의 은혜를 갚기는 어렵다)”라는 옛 글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극정성의 부모 마음은 헤아릴 길 없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자식 노릇 한답시고 어줍게 드린 말씀에 밥 걱정, 옷 걱정, 몸 걱정, 걱정 걱정...

어머니의 자식 걱정은 언제나 곱절, 아니 그 곱절의 곱절은 되어 돌아옵니다. 그 독하디 독한 시집살이 눈물 한번 보이지 않으신 강인함과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어주신 한결같은 자애로움은 자식 낳아보지 못한 놈이 태산 부동泰山不動같은 그 마음 미루어 짐작 하겠다하면 이 세상 자식 가진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생의 말은 바 소임 다 하기에 당신 같은 이의 몸을 빌린 건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아들의 갑작스런 일탈에 놀라움 반 노여움 반으로 지내실 아버지의 침묵의 투정(?)은 어떻게 잘 받아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은 여름이 예상됩니다. 허나 겨울눈 되어 내릴 것은 남겨두어야 할 터입니다. 여름 한철, 그냥 앉아 헛되어 땀 흘리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 작약꽃 흐드러지는 조계산 골짜기에서 큰아들 올림 - 定慧社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

혜소慧昭 | 사집

속가와는 달리 불가에서는 깊은 산중 어둠을 헤치고 울리는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와 함께 번뇌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 된다.

새벽예불, 가장 먼저 신체의 일부분을 마비시킬 정도의 무게감으로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강하게 내리 누르는 수마가 찾아온다.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우면 다른 것은 '욕欲' 자가 붙지만 수면욕은 '마魔' 자가 붙여진 것일까. 우리는 한시도 쉴 새 없이 수마와 싸워보지만 대부분은 수마에게 정복을 당하고 만다. 수마와의 싸움은 새벽예불을 이어 새벽간경, 아침공양까지 이어간다. 혹은 수업시간까지도 이어져 하루가 전부 수마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마의 여운이 한풀 꺾인 사시예불, 이제는 식욕이 내 주위를 맴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식욕은 왕성해 진다. 사시공양을 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기짐은 사라지고 포만감이 자리 잡으면서 식곤증이 찾아온다.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걸 보면 수마가 아무래도 제일 강력한 것 같다.

오후 간경시간이 지나고 다시 저녁 공양시간이 되면 감춰져 있던 식욕이 다시 밀려온다. 하루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기짐과 포만감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저녁예불을 드리고 공사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마가 찾아오고...

우리 불가에서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역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리라.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스님들은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세속 사람들은 그저 굴복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듯 하루 중에 수면욕과 식욕 등 정말 많은 욕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지만 우리 출가자는 그것을 끊어야만 한다. 비록 지금이 부처님의 교법이 언설로만 남아있다는 말법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며 말법시대라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정진하면 언제라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또한 나 이외에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듯이 부처님이 있거나 없거나 전부 나의 수행력에 달려있으며 나의 마음잡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오욕五慾에 얽매어 살고 있지만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끊을 것이며 앞으로 남은 수행자로서의 삶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해 나가겠다. 定慧社

진정한 아름다움

불각佛覺 | 대교

어느덧 벌써 강원 대교반으로써 한가로이 졸업을 기다리며 당당히 비구계를 수지한 후 내외에 인정받는 승려로서 구도를 향한 수행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 놓을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하안거 중반을 넘어선 지금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10년 전 출가를 결심할 때 어느 분이 그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사문을 필요로 하고 사문은 부처를 보아야 한다기에 그 말을 듣고 세상의 인연을 뒤로했습니다.

좋지 않은 건강으로 강원 생활을 힘들게 하여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결국 포기하려 했을 때, 마지막이라며 송광사로 저의 등을 밀어대는 분이 계셨습니다. 송광사 도량은 조사스님들의 열이 아직도 흐르고 있고 청정하고 바른 수행가풍을 지키고 있으며, 사문이 수행을 통하여 보살로서 거듭나는 곳이라며 오히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피하는 저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송광사 강원예 방부를 들였고 힘든 치문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달 반의 병가까지 내며 사집반을 보냈고 한 달이라는 긴 참회를 받으며 사교반을 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이 들 때는 분심과 강원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가득 찼으나 지금은 모든 인연들에 감사할 뿐입니다. 부처님과 성현들, 방장스님 이하 사중 어른스님, 졸업한 윗반스님과 아랫반 스님들, 부목 처사님들과 공양간 보살님들, 산천초목마저도 저에겐 은인일 뿐입니다. 특히 20년 넘은 병을 낫게 해주시었고 출가 인연까지 지어주시며 송광사까지 밀어 넣고는 이제 자신이 보살로서 할 일을 끝내고 자유로운 새가 될 수 있겠다며 기뻐하신 '보갑사' 보살님의 끝없는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보살님은 저를 보고는 청정수행자로서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비추어지는 나비에 비유하며 새로운 수행자로 거듭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4년간 경전을 일러주신 강주스님과 강사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제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부처님과 성현들의 뜻을 받들어 고통 받는 모든 영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천을 벗 삼아 끝없는 힘든 수행의 길을 가는 수행자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더욱 와 닿습니다.

경전을 보았을 때 느끼는 벽찬 희열과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속세에 대해 남은 미련과 번뇌가 사라져 갔습니다. 탐심과 분심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또 다른 세계의 고요함과 평화 속에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는 부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마음속에 흐릅니다. 더구나 내생에 스님이 되기를 발원하며 공양을 올린다는 신도님을 대할 때는 부끄러움과 함께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받은 귀한 삶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아랫반 스님들께서도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승보종찰 송광사 확인답게 모두 힘을 내서 졸업하여 그 무엇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으로 정진하시어 산문을 나갈 때는 모든 이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보살로서 거듭나기를 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定慧社**



야유회 중 일행들과의 단체사진

특별취재 - 소년소녀가장돕기 동행기

그늘 속에 드리운 햇살

편집실

5월 29일 오전 8시. 절집의 스님들도 자율정진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한가로운 일요일 아침, 그러나 순천 인근의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는 세 분의 스님(능혜, 혜강, 두운 - 대교, 사교, 사집 순)들은 무척이나 분주하다. 바로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찾아오는 소년소녀가장들과의 만남 때문이다.

특히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달리 그 아이들과의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다. 그만큼 챙겨야 할 것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다들 싫은 기색이 없다. 짧게는 일년, 길게는 삼년이란 시간 동안 어린 가장들과 쌓아온 정이 깊었던 까닭일까. 마치 속세로 나아가 오누이를 만난 듯 들

뜬 표정들이다. 자신이 소년소녀가장들의 삼촌이라고 말하는 능혜스님처럼 승속의 구분도, 남남이라는 허물도 벗어던진 지 이미 오래다. 그만큼 손놀림은 신이 나 있었다.

이날은 지금껏 음으로 양으로 스님들을 도와 소년소녀가장들의 언니, 누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순천 지역의 청암대 간호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원들도 야유회에 동참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얼마 후 일행은 준비된 스타렉스 승합차에 20kg들이 쌀 몇 자루와 원주스님께서 챙겨주신 갖가지 부식을 싣고 차를 내달려 목적지인 순천 대승사로 향했다.

30분 남짓을 달려서 도착한 대승사에는 오늘 야유회에 동참할 소년소녀가장 아이들과 '순천불교청년회(이하 순불청)'의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스님들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오랜만에 함께하는 야유회가 기대되었는지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저마다 한껏 부린 멋과 들뜬 모습들이었다. 순불청은 대불련과 함께 오래 전부터 스님들을 도와 소년소녀가장을 보살피고 있는 단체로써 후원 행사 시 차량지원이나 스님들이 미처 관심 갖지 못하는 사항들을 가까이에서 수시로 챙기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간병, 치료비 부담 등의 직접적인 정신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대승사에서 일행들을 하차시킨 스님들은 다시 순불청의 김신규(부회장)님과 함께 차를 몰아 어딘가로 서둘러 향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 받은 소년소녀가장들의 가정형편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날은 두 가정의 어린 가장들이 지원 대상으로 추천되었는데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모두를 돕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상 선별할 수밖에



지원 선정대상 가정을 방문한 스님들



야유회 중 소년소녀가장들과의 점심공양

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새로운 지원가정을 선정할 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집안의 경제적인 여력을 기준으로 면사무소 사회복지과, 또는 마을 이장님의 요청이나 추천을 받아서 실사 후 선정한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면사무소 사회복지과의 추천에 많은 의지를 하여 지원가정을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특성상 불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추천받은 지원대상 가정들이 스님들의 역할에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지원이 필요치 않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가정이 선정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요즘에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스님들이 방문하는 두 가정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곳이다.

첫 번째 방문지는 순천에서 별교 방면으로 차로 약 20분을 달려 도착한 어느 야트막한 산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이었다. 주차하기가 만만치 않은 작은 골목, 힘들게 차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길 5분, 드디어 골목 끝의 작은 집에 당도했다.

이곳은 할머니 한 분과 두 자매가 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별이라고는 할머니가 마을의 인근 미역공장에서 일하고 받는 얼마 안되는 수입이 전부였는데 그나마도 공장의 부도로 하루하루 마을 농사 품앗이로 버는 푼돈이 전부란다. 커가는 손녀들의 미래가 안쓰럽고 걱

정되었을까. 할머니는 스님들과의 대화중에도 연신 한숨과 걱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두 자매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1년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이들의 어머니는 사망한지 오래이다. 더구나 할머니 자신도 노환으로 허리병과 디스크 그리고 다리의 통증 등의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손녀들의 뒷바라지는 너무나 힘든 형편인 듯했다. 다행히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비, 학자금 등이 지원되고는 있지만 두 아이와 생활을 꾸려 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 듯했다.

현재 큰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이 가정은 그나마 힘든 상황에서라도 손녀들이 밝게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할머니의 말에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나 재미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스님들이 다음번에 만날 날을 선정하는 도중 스님 한 분이 제시한 날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였다. 할머니의 그 말에 너털웃음으로 화답한 스님들은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배려를 잊지 않았고 앞으로의 지원에 대한 약속으로 오늘의 만남을 끝냈다.

두 번째 방문한 집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이었다. 이곳 역시 아버지와 엄마 모두가 가출한 가정으로 82세의 할머니와 중학교 2학년인 쌍둥이 아이들이 함께 사는 곳이었다. 작고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 집의 전부인 이곳은 가족들이 부재 중 인지 아무도 없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사랑, 그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그 끝은 거대하리라.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에게 가지는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작다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스님들이지만 정작 그 관심과 사랑의 수혜자들에게는 먼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설계하는 소중한 징표 중 하나 이리라.

었다. 동행한 김신규님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이 가정 역시 먼저 방문한 집만큼 어려운 가정인 듯했다. 창문으로 얼핏 들여다 본 일곱, 여덟 평쯤 되는 작은 컨테이너 안에는 침구와 싱크대가 갖춰져 있었는데 컨테이너의 특성상 견디기 힘든 더위와 추위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밖에서 기다리길 30분, 집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도 이 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스님들의 다짐과 확인을 남긴 채 자원봉사자들과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대승사로 다시 향했다.

야유회를 가질 장소는 순천에서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섬진강변

의 유원지였다. 출발할 때 간간히 마른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청명한 초여름의 날씨로 돌아와 있었다. 가족들과의 나들이가 아주 오래 전 기억이라서일까. 그리고 이런 자리가 낯설었기 때문이었을까. 처음에 아이들은 스님들과 봉사자들 앞에서 무척이나 멋쩍은 듯 어색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한 자신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길로 다가온 스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다져온 신뢰에 의지하는 듯 이윽고 허물없이 어

울리기 시작했다. 그네들의 얼굴에서 그런 그들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만치 벗어 놓은 듯했다.

이날과 같은 행사는 일 년에 두어 번 정도 가진다고 하는데 오늘 처럼 많이 모인 적은 없었다고 한다. 행사가 없는 날은 매주 3번째 일요일에 총 9가정을 3분의 스님들과 대불련, 순불청 회원들이 나눠서 각각 3집씩 방문을 한다.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송광사에서 가져온 쌀과 몇 가지의 그곳 실정에 맞는 생필품을 챙겨 가는데 혹 생일인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생일 선물 또한 빠뜨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물품에 필요한 재원은 송광사 강원 학인스님들의 작은 사랑이 모여서 마련되

며, 그 밖에 몇 분의 보이지 않는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4년 동안 거르지 않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애정을 쏟아온 대교반 능혜 스님은 말한다.

“강원 스님들의 정성과 몇몇 후원자님들의 노력만으로는 이쉽게도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들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은 물질적인 도움에 있지 않으며 단지 그들과의 정신적인 교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허물없이 대화하고 어울려 놀며, 가끔은 함께 시내에 나가 영화도 보면서 그들 또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내년이면 강원을 졸업하고 송광사를 떠나지만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단 한 가정이라도 불우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원한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스님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불교가 지향하는 참다운 자비의 실천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비록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풍족한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들을 진정으로 아파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간다면 불국정토는 달리 존재하는 곳이 아니리라.

오후의 섬진강변 하늘은 짙푸른 파란색의 맑은 하늘이었다. 누군가가 파란색은 신뢰감, 희망, 행복, 이런 것들의 상징이라고 했던가.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에게 자신들도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자신들 역시 그런 도움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란 것, 그래서 그네들의 미래에도 희망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하늘이 약속해 주고 있는 듯 했다.

섬진강변 주변으로 난 자전거도로는 스님들과 함께 어울려 페달을 밟는 아이들의 자전거 소리에 유난히 소란스러웠고 분주했다. 특히 스님들과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서로 균형을 맞추며 다른 자전거들을 앞지르는 모습은 여느 가정,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자전거를 타다가 고인물에 옷이 튀기도 하고 바닥에 거꾸러져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스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그저 마냥 즐겁고 행복할 뿐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 모든 이들이 이 아이들과 스님들같이 서로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어울리고 감싸 안을 때 시련은 시련이 아니고 고통은 고통이 아닐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헤어질 때가 되자 아쉬운 듯 스님들 옷자락에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스님들은 따뜻한 미소로 다음을 약속한다. 우리들은 불보살님들을 너무나 멀리서만 찾아온 듯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부처님이었고 자비와 이타를 행하는 보살이었다.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불보살님인 것이다.

혜강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마다 스님들께 양말을 선물한다는 정애(가명), 그 양말을 받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스님

은 양말 한 켤레도 귀중한 보물처럼 기우고 또 기워서 신는 두타행의 시작이 아마 이런 작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매철 해제일 때 받는 얼마 안되는 해제비마저도 몽땅 아이들을 위해 쓰면서 정작 커다란 선물을 받는 것은 자신이라고 말하는 스님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감동시키는 관심과 사랑의 큰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과 사랑, 그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그 끝은 거대하리라.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에게 가지는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작다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스님들이지만 정작 그 관심과 사랑의 수혜자들에게는 먼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설계하는 소중한 징표 중 하나이리라. 하루의 행사를 마무리하고 돌아온 송광사, 역시나 스님들은 여느 때처럼 오늘 하루도 모자라게 살았다며 하루를 반성하며 대웅전의 부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 **定慧社**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계좌 안내

우체국: 503490-01-001097 황소연
농협: 810-02-120594 박채균

동아보살

능인能印 | 치문

저의 은사스님 절에는 TV에도 몇 번씩 출연한 스타 개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동아, 암컷 진돗개입니다. 생긴 모습은 살이 통통하게 찌서 세워 놓으면 꼭 반달곰 같이 생겼습니다. 제 은사스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기르셔서 여태껏 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13살이니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승랍이 13년입니다.

이 동아보살이 13년 동안 저희 절에 보시한 돈 또한 엄청납니다. 그동안 새끼를 50마리 정도 낳아서 신도들이 한 마리씩 가져가면서 보시한 돈이 꽤 됩니다. 게다가 목에 커다란 염주를 항상 걸고 다니는데 관광객이나 신도들이 볼 때마다 귀엽고 예뻐서 목에 돈을 끼워줍니다. 이 돈도 상당합니다. 심지어는 TV출연도 몇 번씩 해서 스타 아닌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보살의 특이한 점은 다른데 있습니다. 항상 새벽예불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사시, 저녁예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자님들이 새벽에 도량석을 돌면 스님들보다 먼저 법당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곳 송광사처럼 저희 절에도 「금강경」을 매일 새벽마다 독송하는데 항상 「금강경」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다가 독송이 끝나면 법당을 나갑니다. 꼭 스님들 같습니다. 정말 몇 겁 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코 수행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업을 지어서 개의 몸을 받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금생에 저렇게 부지런히 공덕을 쌓는 것을 보니 내생에는 틀림없이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보살이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털도 푸석푸석하고 절 근처 동네 개들하고도 싸우면 상처가 많이 나서 들어오기 일쑤지만 뒤통뒤통 걸으며 도량을 다니는 것을 보면 꼭 어른스님이 도량을 한 번씩 순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굉장히 의젓해 보입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주면 졸래졸래 잘 따라갑니다. 그럴 때는 스님들을 본체만체도 안합니다.

한번은 며칠씩 나가서 안들어와서 은사스님 속을 많이 태웠던 적도 있습니다. 제 녀석도 절에만 있어서 갑갑했던지 만행을 다녀왔나 봅니다. 그렇게 한 번씩 만행을 갔다 오면 며칠 동안은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 기척도 없이 자기 집에만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주위에선 동아보살이 죽게 되면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은사스님께서도 동아보살이 죽게 되면 스님들께서 열반하시면 다비식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동아보살이 개의 몸을 받고 금생에는 태어났지만 이렇게 여러 스님들과 인연이 된 공덕으로 내생엔 틀림없이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定慧社

나침반

연관蓮觀 | 사집

아직까지 하판 생활이라 그런지 방학은 강원생활의 꽃이다. 학인스님들 대부분이 산철이든 안거철이든 방학 생각을 많이 하면서 힘들고 바쁜 일과를 참아낼 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방학이 새로운 안거의 시작이다.

방학을 맞이하면 순천에서 오랜만에 때 빼고 팔죽 한 그릇 사먹고 은사스님 절에 가서 우선 은사스님께 삼배를 드린다. 삼배를 드리고 나면 은사스님께서서는 그 천진동자 같은 흡족한 웃음으로 맞이해주시면서 “편히 앉아라 차 한 잔 하자!”라고 말씀하신다. 나도 그랬었지만 우리 절에 갔던 적이 있는 스님들은 알다시피 그때부터 고문의 시작이다. 편히 앉아라는 말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듣고 편히 앉으면 당장 말씀이 떨어진다. “수행인은 ‘편히 앉아라’를 결가부좌로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여.”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차를 마시지만 하체는 괴로운 지옥 중생이 되고 만다.

나도 늦은 나이에 출가해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겪어보고 스님들과도 많이 지내보았지만 우리 은사스님은 확실히 모든 면에서 독특하시다. 행자 교육을 마치고 절에 인사드리러 가면서 다짐하기를 “죽어도 기초선원 가서 3년 안에 화두를 끝장낸다고 하자”며 절대 물러서지 않고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었지만 우리 은사스님 철벽 디펜스가 훨씬 강력한 줄을 미처 몰랐다. 고집부리는 나를 3박 4일 동안 “송광사가 아니면 절대 안된다. 수행 제대로 하려면 송광사가야 한다. 거기 가지 않으려거든 다시 보지 말자”고 일관된 주장을 하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 막무가내로 우리 절 1호차 88오토바이에 걸망을 실으시고 “야 타! 빨리 안가면 좌차 밀려서 고생해” 하시면서 송광사까지 손수 배달...(혹시 중간에 발생할 배달 사고에 대비하신 것 같다)

처음에 말도 잘 안듣고 내 주장도 많이 했지만 방학 때마다 꼬박꼬박 들려서 시봉해드리면서 지금은 오히려 모범생이 되어간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지니신 어른스님들이 대부분 그러시지만 은사스님은 말이 없으신 가운데의 주장은 ‘몸에 배어 우러나오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인 것 같다. 같이 며칠을 살아보면 초인적인 의지와 노력, 검소, 배려 등에 저절로 입이 다물어진다.

우리 절은 양철 조각들을 이어서 엮은 조그만 토굴이다. 하지만 은사스님은 대중생활의 법도는 철저히 다 지키신다. 나는 방학 중에도 2시 반에 일어난다. 도량석 돌고 예불 드리고 하루 종일 안거 때와 똑같다. 은사스님은 항상 겨울이고 여름이고 안거나 산철이나 관계없이 실외에서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하고 계신다. 또 얼굴은 동자 같으시지만 지독한 구두쇠의 측면이 있어서 며칠이라도 같이 생활하다보면 웬만한 이들은 질리게 된다.

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기도 드리고 하면서 간혹 우리 스님과는 즐겁게 말다툼을 한다. 물 쓰는 것, 쌀 씻는 것, 밥 먹는 것, 앉아서 자세 바로 하는 것 등 일일이 다 잔소리... 심지어 대

소변조차 모두 재활용해야 한다. 냉장고 없이 10년을 살면서 구더기 슬고 곰팡이 슬은 것 버렸다가 들키면 바로 불호령이다. 모두 드셔서 소화시키신다. 가끔 해우소에서 불일 볼 때도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너 방학해서 오고부터 화장지가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 그 잔소리 듣고 나면 뒤통리가 좀 부실해진다. 동진 출가하셔서 큰스님들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탓인지 거의 30년을 변함없이 사신다. 봄가을은 낮에는 농사짓고 나무하고 밤에는 앉아서 아침을 맞이하시고 모든 것이 공부라며 보살이든 처사든 법랍이 높은 낮은 손님이 찾아오면 삼시공양을 모두 해서 올리고 차 대접하고, 한결같다는 말 그 자체이다.

신도님들 가운데는 구두쇠 스님이라고 장난스럽게 타박하는 신도들도 있다. 국수를 좋아하시니 신도들이 오면 어찌다 한 번씩은 국수 먹으러 나가시고 나는 절을 지키곤 하는데 스님께서 나갔다가 오시는 날은 구두쇠 스님이라는 신도들의 투덜거림을 들곤 하신다. 신도님들이 장난삼아 한번이라도 사달라고 아양을 떨어서 할 수 없이 약속하고 같이 가서도 다 드시고 나면 먼저 줄행랑... 하지만 신도님들이 면전에서 투덜대지만 속으로는 돈 잘 쓰는 스님보다 구두쇠 스님을 훨씬 더 존경하는 것 같다.

아무튼 장난스럽고 별 말씀은 없으시지만 가끔 지나가는 농담이 가슴을 울릴 때가 많다 “연관아! 불법은 실천이다. 너는 강원생활이 힘들겠지만 내가 이 집을 나를 위해서 지었겠냐? 지금 하는 뉘갸미 필요하겠냐? 말만 많이 삼지 말고 공부 외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돈 아껴 써라. 헛되게 살면 다 죄 된다.” **定慧社**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법공法空 | 사집

스님이라면 누구나 처음 출가했을 때의 가슴 벅찬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출가를 포기한 이야기가 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출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출가를 포기했던 그날의 굳은 신심과 결의를 잊을 수 없다.

그날은 학교 수업을 막 끝낸 늦은 오후였다. 15살, 오랫동안 맘을 다져 먹던 출가를 하기 위해 집에 가방을 던져 놓고 무작정 집을 나왔다. 부모님께서 출타를 하셨는지 마침 집은 비어 있었다. 편지를 써놓고 나올까 생각했지만 너무 요란스럽고 자질구레하다고 생각해서 그만 두기로 했다. 그리고 곧장 북한산 도선사로 향했다. 북한산 언저리에 채 닿기도 전에 날은 이미 어둑어둑 해졌다. 난 스님이 잠들어 버린 뒤에 도착하면 어쩌나 내심 불안했다. 잠든 스님을 흔들어 깨우고 머리 깎아달라고 조를 수는 없는 일,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뛰었던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뛰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이 절 일주문을 넘었으리라.

절에 다다를 때쯤 어디선가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절마 절 안에 귀신이 살고 있을 리는 없고 누가 울고 있을까.' 난 호기심에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굳은 맘을 먹고 오긴 했지만 막상 출가를 하려고 보니 몹시 두려웠는데 그 참에 이 울음소리가 나의 두려운 마음을 환기시켜 준 것이다. 한참을 살펴보니 절 경내 입구에 세워진 지장보살상 앞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울고 있었다. '도대체 왜 우는 거지. 그것도 하필이면 돌덩이 앞에서...(그 때 당시 난 불상이란 개념을 잘 몰랐다)' 난 호기심에 그 돌로 만든 석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장보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옥에 계시는...(생략)"

'아, 중생을 구제하는 돌덩이 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많은데 왜 돌맹이한테 울고불고 하소연 하는 거지.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님 이라고는 하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더욱이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하는 돌맹이인데 말이야. 스님들한테 가서 하소연 하면 다 들어 줄 텐데 참 이상하네.'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당시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져오는 의문이었다. 그렇게 지장보살상을 지나 본래의 뜻인 출가를 하기 위해 스님 앞에 섰다. 스님 앞에 서기까지 지장보살 앞에서 울던 보살님에 대한 의문은 떠나질 않았다. "꼬마야, 늦은 저녁에 무슨 일로 찾아온 거니." 스님이 물었다. 난 선뜻 출가하러 왔다고 얘기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자꾸만 지장보살상에 대한 의문이 나의 말을 막았다. '여기 스님이 계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위로의 말 한 마디 못해주는 돌맹이에게 하소연 한다. 절이란 곳이 그런 곳인가. 도대체 스님들은 뭐하는 거지. 스님이라는 게 저 돌덩이보다 못하단 말인가.'

스님은 머뭇거리며 내게 재차 물었다. "꼬마야,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불현듯 난 생각했다. '난 부처가 되려고 왔다. 돌맹이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돌맹이보다 못한 스님이 되려는 것도 아니다. 돌맹이보다 못한 스님 밑에서 공부해 봤자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차라리 내 산 부처가 될지언정 이곳 중은 되지 않으리'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집으로 향했다. 2년이 지난 뒤 다시 출가를 해서 지금의 송광사 학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의 풋풋한 순수함과 부처를 향한 열정은 나의 마음에 죽비를 친다. **定慧社**

행복하라



연약한 것이거나 강한 것이거나 짧거나 길거나
큰 것이거나 작은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장차 태어나려는 것이거나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여 다 행복하여라.

〈145;146〉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속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원한과 분노로부터 벗어나 남을 해치지 말라.

〈147〉

어미가 위협을 무릅쓰고 자식을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갈고 닦아라.

〈148〉

위이거나 아래이거나 모든 생명에게 방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적의를 품지 말고
선행을 갈고 닦아라.

〈149〉

서 있을 때이거나 걸을 때이거나
앉아 있을 때이거나 누워 있을 때이거나
눈을 뜨고 있는 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행을 쌓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러한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니라.

〈150〉

Mettasutta 〈Sutta - Nipatta〉

詩가 있는 풍경

그대의 門

시관是觀 | 사집

한발 한발 딛고 디딘 것이 그대의 문턱
들어오라는 애잔한 음성은
사무치게 울리건만
머뭇거리는 마음은
바람처럼 스쳐 떠돌고
구름 속에 살며시 젖은 속살은 가슴을 머금고 조계산 등성이를
아로 새기었네
한 잔의 찻잔을 아우르는 종소리를
다 먹었다지만
내리는 깊은 계곡은
한 방울에 물도 뒤로 하지 못하니
누가 너를 위해
문을 열어주리.

차 마시기 좋은 날

종관宗觀 | 사집

바람을 청아한 피리소리 삼아

나무는 장단을 맞추어 춤추니

관객은 차 마시는 암자의 스님뿐

그러나 스님이 바라보는 곳은

춤추는 나무가 아닌 한 잔의 차

참으로 찻잔에 어리는

맑은 빛깔이 더욱 곱고 좋아서

차를 마신다네.

미소

연본鍊本 | 사집

결에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작은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윽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가벼운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친절합니다.

이 행복으로
모든 존재가 함께 하길

이 따뜻함으로
모든 존재가 미소 짓길

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존재가 비취지길

이 친절함으로
모든 존재가 관심 속에 있길

그대 아시나요.
이것이 무엇인지...

공양의례 供養儀禮에 관하여

지륜 知輪 | 사집

하안거 소임표를 짜는 용상방 시간이었다. 방장스님께서 “공양을 할 때 천천히 드십시오. 빨리 대충 먹으면 콩밥 같은 경우는 해우소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야무지게 씹어서 몸에 영양분을 주고 마음속으로는 오관계를 외며 공양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공양이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며 몸의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닌 수행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1. 공양 供養의 정의 正意

공양이란 산스크리트어 Pujana의 번역어로 공시 供施·공급 供給·공공 供供·식물 食物 등으로 번역되며, 음식이나 의복·탕약 湯藥·방사 房舍 등을 불·법·승 삼보께 공급하는 일을 말한다. 이에 탁발에 대한 공양의 의미는 재식 齋食의 의미로 전이되기도 한 채 밥을 먹음, 즉 식사 일반에로 그 뜻이 변이 되었는바, 그럼에도 이에 는 의례적 의미가 강조됨으로 해서 공양을 법식 法食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아귀다라니 경 餓鬼多羅尼經을 근거로 한 식당작법 食堂作法 등의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2. 공양에 나아가는 의례

공양에 나아가는 의례를 살펴보면 <교계 신학 비구 행호 율의>의 ‘이시식법 二時食法’, ‘식료출당법 食了出當法’ 과 <입당구법순례행기>의 당 개성 3년(838년) 11월 24일 기사에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으나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미율의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중과 함께 밥 먹는 법 (수중식)

- 1) 밥 종소리를 듣거든 곧 옷을 정돈 整頓하라.
- 2) 밥을 받고 축원 祝願할 적에 마땅히 공경 恭敬해야 한다.
- 3) 생반 生飯은 밥이면 일곱 낱, 국수면 한 치, 만두는 손톱만큼 뜯지니 많으면 탐貪이 되고 적으면 인색한 것이며, 나물이나 두부는 내지 않는다.
- 4) 생반 뜯 것은 왼손바닥에 놓고 계송을 외운다. ‘내가 지금 귀신 鬼神들에게 먹을 것을 주노니, 시방에 가득차서 여러 귀신이 다 먹어라.’
- 5) 밥을 받고는 다섯 가지로 살펴보되, 첫째 공력 功力이 얼마나 들었으며, 어찌하여 여기 왔다. 둘째, 내 도덕 道德과 내 행실 行實이 이 공양 供養을 받을 만한가? 셋째, 나쁜 마음을 끊으려면 탐진치 貪嗔癡가 으뜸 일세. 넷째, 여위는 몸 낫는 데는 다시 없는 약藥이리니, 다섯째, 보리도품 菩提道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먹사 오리 하라.
- 6) 음식 飲食을 좋다 나쁘다 나무라지 마라.
- 7) 음식 飲食으로써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쓰거나, 떼어서 개를 주면 못쓴다.
- 8) 가반 加飯할 때에 ‘안먹어요’ 해서는 못쓰고, 배가 부르거든 손으로 사양하라.
- 9) 머리를 긁어서 더러운 것이 발우 곁에 떨어지게 하면 못쓴다.
- 10) 음식 飲食을 입에 물고 말하면 못쓴다.

- 11) 웃고 이야기 하면 못쓴다.
- 12) 음식飲食을 씹어서 소리를 내면 못쓴다.
- 13) 이쭉시개를 사용하려거든, 옷소매로 입을 가리라.
- 14) 음식飲食에 벌레가 있거든 아무도 모르게 치워 버리고, 곁에 사람이 보고 의심하게 하지 말라.
- 15) 앉은 자리에 모두 먹어야 하고 먹고 옮겨 앉아 또 먹으면 못쓴다.
- 16) 먹고 나서 손가락으로 그릇을 훑어 먹으면 안 된다.
- 17) 밥 먹는 것은 너무 빨라도 못쓰고, 너무 늦어도 못쓴다.
- 18) 가반加飯이 미쳐오지 않는다고 짜증내면 못 쓴다.
- 19) 시킬 일이 있거든 손짓으로 시늉하고, 크게 말 하지 말라.
- 20) 발우 소리를 내면 못쓴다.
- 21) 밥 먹고 먼저 일어나지 못한다.
- 22) 규칙을 어기다가 경책을 받고 반발하면 안된다.
- 23) 밥에 뉘가 있으면 껍질을 벗겨 먹는다.
- 24) 맛난 음식을 보고 탐심貪心을 내어 마구 먹으면 못쓴다.
- 25) 대중을 떠나 따로 먹으면 못쓴다.

3. 공양의 의례

일반 불자의 경우 간략한 계송과 함께 합장을 하고 공양에 임하나 승가에서 재식齋食의 경우 「반야심경」 내지 「소심경」을 독송하는데 이 의례는 신라후기, 당 唐에서의 공양의식과는 달리 의식이 좀 더 구체화 된 채 적어도 고려 초부터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보조국사 스님의 <계초심학인문> 가운데 “재식시齋食時……(중략)……수지수식須知受食 단료형고但療形枯 위성도업爲成道業 수념반야심경須念般若心經 관삼륜청정觀三輪淸淨 불위도용不違道用”이란 구절이 발견되고 있는 바, “단료형고但療形枯 위성도업爲成道業”이란 어구는 현존의 「반야심경」 내지 「소심경」의 ‘오관계五觀偈’ 가운데 “정사양약위료형고正思養藥爲療形枯 위성도업응수차식爲成道業應受此食”이란 어

구에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반야심경」은 오직 영산재靈山齋의 식당작법 가운데서만이 실행되고 있으며 「소심경」의 경우 몇몇 부분이 생략된 채 현재 총림叢林 내지 본사本寺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송광사에서 이루어지는 공양작법을 살펴보겠다.

공양작법

대웅전에서 사시불공을 마치면

1) 큰방 부전은 공양을 알리는 종을 5번 친다.

2) 모든 대중스님들은 안행하여 큰방에 들어와 발우를 자기 앉을 자리에 놓고 합장저두 한 뒤 앉아서 기다린다.

3) 죽비 한 번에 합장하고 : 불은상기계佛恩想起偈,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계송

불생가비라佛生迦毘羅 성도마갈타成道摩竭陀

설법바라나說法波羅奈 입멸구시라入滅拘尸羅

이는 불교도가 순례해야 할 네 곳의 영탑을 설하는 바 불생지로서의 가비라(룸비니), 성도지로서 마갈타(보드가야), 설법지로서의 바라나(바라나시 녹야원), 입멸지로서 구시라(쿠시나가라) 등이 이에 속한다.

4) 죽비 한 번에 합장하고 : 전발계展鉢偈, 발우를 펴는 계송

여래응량기如來應量器 아금득부전我今得敷展

원공일체중願共一切衆 등삼륜공적等三輪空寂

여래의 발우를 내 이제 얻어 펼치오니 원컨대 공법계의 일체중생 모두가 함께 삼륜 공적하여지이다.

5) 죽비 세 번에 합장저두하고 전발을 한다.

6) 죽비 한 번에 합장하고 : 십념불

청정법신비로자나불淸淨法身毘盧遮那佛

원만보신노사나불圓滿報身盧舍那佛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당래하생미륵존불當來下生彌勒尊佛

시방삼세일체제불時方三世一切諸佛

시방삼세일체존법時方三世一切尊法

대지문수사리보살大智文殊舍利菩薩

대행보현보살大行普賢菩薩

대비관세음보살大悲觀世音菩薩

제존보살마하살諸尊菩薩摩訶薩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若波羅密
 (바라밀하며 저두低頭)

시방세계의 모든 불·법·승 삼보에 대한 념과 모든 보살에 대한 념을 그리고 반야바라밀에 대한 귀의를 행함.

7) 죽비 한 번에 행반을 한다.

8) 죽비 한 번에 발우를 정대하고 : 봉발게捧鉢偈

약수식시若受食時 당원중생當願衆生

선열위식禪悅爲食 법희충만法喜充滿

이 음식 받으며 오직 원컨대 모든 중생들 선의 열락으로서 음식 삼아 법의 기쁨 충만케 되어지이다.

9) 죽비 한 번에 합장하고 : 오관상념계五觀想念偈

계공다소량피래처計功多少量彼來處

촌기덕행전결응공付已德行全缺應供

방심리과탐등위중防心離過貪等爲宗

정사량약위료형고正事良藥爲療形枯

위성도업응수차식爲成道業應受此食

공功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이 음식 건네오게 된 인연을 사랑하며, 자기의 덕행德行을 헤아려 결함을 온전히 한 채 공양에 응해야 할 것이다.

마음을 방호하고 과실과 탐욕 등 여임을 종宗으로 삼으며, 정히 마른 몸 치료하는 약으로 생각한 채, 오직 도업道業 성취를 위해 이 음식을 받습니다.

10. 죽비 한 번에 감로인甘露印을 맺고 : 출생계出生偈

여등귀신중汝等鬼神衆 아금시여공我今施汝供

차식변시방此食遍十方 일체귀신공一切鬼神共

(생반生飯을 떠냄 : 재가 없는 날)

11) 죽비 세 번에 합장 저두하고 공양을 한다.

12) 죽비 두 번에 승능을 상좌上座에서부터 돌린다.

13) 죽비 한 번에 찬상을 내가고, 들어 올 때에 퇴수통을 들고 들어온다.

14) 죽비 한 번에 천수를 하좌下座에서부터 거둔다.

15) 죽비 한 번에 감로인을 맺고 : 절수계折水偈

아차세발수我此洗鉢水 여천감로미如天甘露味

시여아귀중施與餓鬼衆 개령득포만皆令得飽滿

'옴 마후라세 사바하'

내 이 발우를 씻은 물, 하늘 감로의 맛과 같은 것.

너희 아귀의 무리에게 주노니, 모두가 포만함을 얻을지어다.

16) 죽비 한 번에 합장하고 : 식필상념계食畢想念偈

반사이홀생력충飯食已訖色力充

위진시방삼세웅威振十方三世雄

회인전과부재염回因轉果不在念

일체중생획신통一切衆生獲神通

공양이 이미 마치고 몸의 기운 충만하니, 그 위엄이 시방삼세의 영웅에 버금가누나. 인연을 돌이키고 그 과보를 되돌려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 일체 중생이 신통을 얻게 되리라.

17) 죽비 세 번에 합장 저두하는 것으로 공양을 마친다.

4. 맺음말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행위이다. 육체에 밥을 줄 때 우리의 정신에게도 밥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양할 때 그 의미를 관하는 것이다.

육체에게만 밥을 주지 말고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을 느끼며 의식을 행한다면 공양의식은 우리의 신심을 고취시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定慧社**

참고자료 —————
 한국의 불교의례<운주사> - 正覺스님
 사미율의 - 哲牛스님

언어문자言語文字와 깨달음

정응淨應 | 사집

화엄전 옆, 대나무 밭은 한껏 질푸르고 꼬마새의 날개짓이 기운차 보이더니 여름인가 보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이라도 이 초여름의 정경을 100%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냇물의 흐름이 한결같은 것이 없듯이 삼라만상이 무상無常하다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즉 빈틈없이 변화하므로 어느 것 하나, 이것이라고 고정화 내지 실체實體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위의 여름 정경을 보더라도 언어문자로 실상實相을 사실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즉 문자로 표현된 것은 실상과 많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완전하지 않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 선지식 스님들께서는 진여眞如를 이 언설상離言設相 이명자상離名字相 또는 불가설不可設 불가념不可念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의 세계라고 했다. 허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께서는 팔만사천법문과 수많은 선서를 후대에 남기셨으며 한결같이 나는 한마디 법문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어떻게 새겨들어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일단 언어 문자부터 살펴보자. 생각을 글로 옮긴 것이 문자요 말로 한 것이 언어이다. 언어문자의 속성은

1. 부분으로써 전체를 나타낼 수가 없다(장미꽃을 예로 들어 그 물기, 온기, 햇볕, 색깔 등 장미꽃의 온전한 모습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다).
2. 실상實相은 무상無常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언어문자를 쓰는 순간 실체화 된다.
3. 고정화 된다.

4. 분별심(‘나’와 ‘너’라는 식의 인식으로 소외감이 생긴다.)

5. 구속(한정)력(예를 들면 책상은 앉아서 책보는 도구로만 한정된다.)

6. 복제적이다 - 실제의 장미꽃은 무상無常하여 없어질 수 있으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장미꽃은 현실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장미꽃이라는 개념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버리지 않는 이상 시간과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계속 똑같이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개념과 실제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이 있다. 그래서 언어문자를 부정하는 것이 불교의 주초를 이룬다. 실제 컵은 컵이라고 말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말인즉 컵이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출발은 언어적멸言語寂滅, 즉 언어와 결합된 문제, 마음, 생각, 속성 등 그 업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다음, 실상實相은 어떠한가.

실상實相은 무상無常으로서 실체가 없는 무이無我, 공空, 공적영지空寂靈知, 불성佛性 등으로 표현한다. 만약 실상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로 인해 막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상은 투명(空)하기에 일체변화를 낼 수가 있다. 공적영지인 실상은 인위적이거나 조작이 없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여윈 본래 있는 그런 성질로 모자람도 없고 도움이 필요 없는 무수무증無修無證 본래청정本來淸淨 완전히 무결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제일 큰 공덕을 경經을 수지독송受持 讀誦하는 것으로써 보리菩提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언설言設은 유위有爲이고 깨달음은 무위無爲인데

어떻게 유위有爲를 수행해서 무위無爲를 이룰 수가 있는가. 유위有爲든 무위無爲든 실체가 있다고 하면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나 모두 그 실체가 공초하기에 가능하다. 바로 공즉시색空卽是色이며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이다. 서로 대립하지 않고 즉卽으로 해소되는 것은 실체론적인 차별관,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실체론적인 평등관으로 보면 즉卽이 가능하다. 번뇌를 실체로 보지 않고 한 생각 돌이킬 수만 있다면 번뇌가 바로 보리로 변할 수 있다. 번뇌를 실체로 보면 영원한 번뇌일 것인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래 부처도 없고 번뇌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공초한 것이 진리이다. 여기에서 한 생각 일어나면 차별심이 되고 실체로 생각하는 중생심이 생겨난다.

무명無明이 왜 생기나.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은 실체화되는 사고방식이다.(무명이 실제 있으니까 무명의 원인도 있다는 사고방식) 무명은 '실체화' 하는 사고방식에서 생긴다.(그렇다면 무궁무진한 원인이 나타나게 된다. 원인이 실체가 되고 그 실체의 원인 원인...) 무명 또한 실체가 아니며 원인이 없는 것이다. 번뇌가 있고 공적영지空寂靈知가 있다는 실체론적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누가 만든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을 내는 것이다.

부처님과 선지식께서는 이와 같은 중생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언어문자란 방편을 써서 언어문자의 속성이 소멸되는 팔만 사천 법문과 수많은 선어록 등으로 침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언어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다. 손가락에 속지 말고 손가락 너머 달을 보라고, 당신들은 한결같이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진리는 언설言說을 끊은 무위無爲일지라도 언설言說(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의 말씀)은 바로 무위의 인因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신심信心이 지극하면 유위가 변해서 무위가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다.

신심과 해解의 관계에 대해서 보조스님의 『진심직

설眞心直說』 ‘진심정신眞心正信’ 편에서는 “영명운永明云 신이불해信而不解 증장무명增長無明 해이불신解而不信 증장사견增長邪見 고지신해故知信解 상점득입도질相兼得入道疾”라 하였다.

번역하면 “영명연수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믿기는 믿으나 알지 못하면 무명만 증장하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샅된 견해만 증장한다. 고로 알라. 믿음과 앎이 서로 겸해야 도에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다. 이때의 앎은 실천(行)을 동반해서 증득함이 있어야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된다. 수행법修行法 가운데 하나인 간화선看話禪은 화두로써 언어도단에 이르게 하여 화두마저도 사라져 깨침에 들게 한다.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생각의 길이 갈 데까지 간, 가장 미세한 생각의심인 화두 참구법도 의단疑團(화두)을 드는 것이다.

팔만사천법문도 실체의 입장으로 보는 중생에게는 번뇌가 되지만 연기緣起와 공초의 입장인 부처가 말하면 진리가 된다. 염불, 간경, 기도, 예불, 참회, 주력, 공양, 강의, 운력 등 일상사에 말길(언로言路)과 생각의 길(수행처修行處)이 끊긴 자리를 觀하는 회광반조回光返照(언어문자, 相, 외부, 생각 이전의 것을 관조觀照함)는 분별심을 사라지게 해 깨달음에 이르게 필수이다. 모든 수행은 바로 '나'란 생각 '너'란 생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나'란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나'란 생각 때문에 '너'란 생각이 일어난다. 참선, 화두 수행도 '나'란 생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인욕행忍辱行과 하심下心은 아상我相을 조복하는 데 좋은 수행법이다. 말할 것을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은 분별심과 아만심을 내지 않게 해준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나'란 생각을 내지 말고 참으라. 수행자가 남의 허물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함은 근본적으로, 중생의 입장('나'와 '너'의 입장)에서는 아상이 치성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나', '너'란 생각이 없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입장이기에 허물이 없다. 수행이 될수록 아상이 점점 없어지니까, 남에 대한 견해를 안 갖게 되고 오히려 자기 허물만 보이

게 된다. 말이란 분별심이며, 묵언默言은 분별심을 끊는 연습이며 깨달음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성숙될수록 나의 범위가 넓어진다. 불교의 나의 범위는 대상이 무한정이며 종교도 유무정有無情도 초월하는 삼천대천세계가 '나'이다. 수행의 점검은 남과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나와 남을 동체대비로 보는가. 번뇌란 나와 남으로 갈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취와 유는 그중 가장 치성한 번뇌이다.

우리 공부는 분별심을 없애려는 지혜공부이다. 탐진치貪嗔癡를 내지 말고 업력에 끌려가지 않으며 무아행無我行과 동체대비同體大悲로 자리즉이타自利卽利他人 무심평등無心平等인 올바른 행, 즉 중도를 행하다가 기연機緣(거의 깨달으려는 시절 인연; 촛불이나 빛장, 방棒이나 할囑 등이 계기가 됨)을 만나면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직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간은 유有의 입장으로 보는 가치관이지만 출세간은 공空의 입장으로 보는 가치관이다.

일용사무별日用事無別
유오자우해唯吾自偶諧
두두비취사頭頭非取捨
처처몰장괴處處沒張乖
주자수위호朱紫誰爲号
구산절점애丘山絶点埃
신통병묘용信通并妙用
운수여반시運水與檝柴

일상사가 다름 것이 없나니
내가 스스로 하나가 될 뿐
무엇이나 취사 없으니
어디서건 어긋남이 없다
높고 낮음을 누가 말 하는가
청산에는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것을
신통묘용이 무엇이나 하면
물을 길고 땀나무 나르는 일
- 방거사 -

조사의 오도송悟道頌도 경전의 확인에 불과하다.

말보다 행行은 얼마나 어려운지...

나의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아는 도반스님들께 심히
치恥하다. 定慧社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실



2월 11일 제17회 졸업식

4년간의 수행정진을 되돌아보는 졸업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 곡절 속에 무사히 졸업을 하신 선배 스님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앞으로 출가사문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시는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4월 7일 소방훈련

지난 봄철에 있었던 작은 화재 사건은 화마의 무서움을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에 이제 두 번 다시 화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응급 구호 처치법을 배우는 우리 스님들의 눈빛, 진지하기만 합니다.



4월 14일 봄산철 원족산행

새로 입방한 강원 식구들과 윗반스님들이 화사한 봄날 지리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고단의 정상에서 보이는 산세의 아름다움에 잠시나마 무아의 경지에 빠져봅니다. 멀리 보이는 천왕봉을 뒤로 하고 한껏~ 지리산의 봄을 자유로이 만끽하며 산철 안거의 여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4월 23~24일 삼월불사

보조국사 종재일이자 보살계 수계 산림이 있는 삼월불사가 있었습니다. 보살계도 받고 대덕 스님들의 법문도 들으며 불심을 다져봅니다. 여러 불자님들의 공덕으로 수계산림을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모든 불자님들 성불하십시오.



5월 5일 부처님 오신날

시방세계 곳곳마다 자비의 연등과 함께 부처님의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한 석가탄신일입니다. 연등 하나하나에 소중한 소망과 정성을 가득 담아 올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5월 13일 지방선거

민주시민의 손으로 각 시, 도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날, 대중 스님들 모두가 이날 만큼은 출가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5월 14일 차 따기 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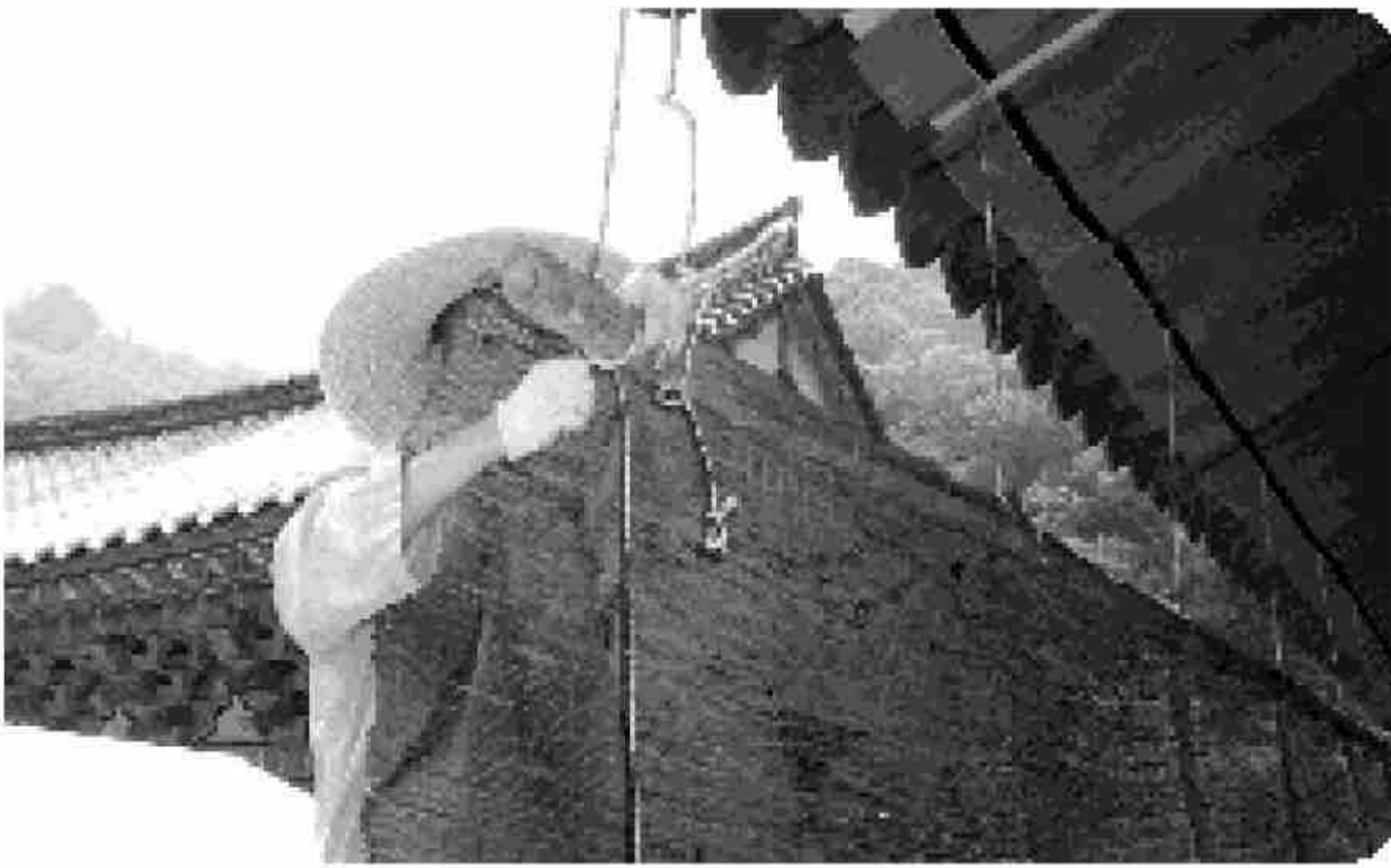
감로암과 종무소 뒤편으로 찻잎들이 파랗게 돌아났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채취한 차 맛은 어떨까. 대중스님들 모두가 찻잎을 따는 손길 하나하나에 쏟는 정성으로 어느새 가득 찬 바구니. 차 한 잔 마시기는 쉬워도 차 만들기는 어렵구나.





6월 3일 일각선사 추모제

3대 방장을 지내셨던 일각 큰스님을 추모하는 날이였습니다. 일각 큰스님의 옛 자취와 가르침이 우리 후학들이 정진하는데 큰 기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7일 하안거 발운력

하관스님들의 발 운력 덕분에 정혜사 주변으로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 졌습니다. 한가로이 쉬라고 만든 그늘이 아닌 이상, 더욱 더 용맹정진 해야 되겠지요.



6월 17일 학술대회

송광사 사고史庫에 관한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송광사 사고의 역사적 의의를 더듬어 보는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발표에 힘써주신 강사스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박물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월 28일 하안거 원족산행

더운 여름 화순 운주사에서 안거 중 잠시나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불천탑과 와불에 소망을 담은 옛 사람들의 숨씨에 잠시 감탄하며 수행의 의지를 다잡아 봅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꽃꽂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박채균
연락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능혜스님 061)755-5302

「정혜사」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 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 출판물로서 발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송광사 강원과 인연을 함께하며 여러 스님들 및 불자님들의 호평과 격려, 그리고 질타와 충고 속에서 출판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상 기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는 앞으로의 발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 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 : 송광사 정혜사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송광사 선원 유나스님·송광사 선원 고웅스님·부산 관음사·화순 운주사·광주 증심사·내원정사 지산스님·서울 길상사·하동 칠불사·공주 동학사 강주스님·나주 미륵사·뱀어사 강원 유신스님·송원회·순천 연화심님·하대원화님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서울 길상사·순천 금강식당·광주 정안사·홍국사·증심사·나주 심향사·송광사 무애 강사스님·완주 송광사·부산 관음사·전주 금선암·경주 골굴사·전미정님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창원 길상사 주지스님·사천 달마사·김천 대휴사·도서출판 법공양·김갑숙님·이경주님·김현정님·하소정님·박재순님·최선희님·한동화·곽미숙님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 정혜사 편집을 통해서 오히려 강원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많은 부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임이 아닌 또 다른 분상의 공부라고 생각하며 하안거를 무사히 지낸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작은 책자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연의 발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33호 「정혜사」 발간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글을 꾸밈없이 내보여 주신 여러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숙한 솜씨로 만든 저희의 노력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좀 더 좋은 강원 학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술년 하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예나 지금이나 공부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저 정진, 정진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편 없습니다.

제가 모신 효봉 스님은 참 우직하게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도 나는 미련하게 그저 밀고 나가는 법 밖에 모르니

너희들은 좀 슬기롭게 공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중 겪어보고 나니 그분의 공부법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편이었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 방장스님 법어 中 -



밖으로 세상갈등世上葛藤 모조리 쉬어별고
안으로 마음 번우煩憂 직살나게 끊어지니
이 문門에 들어온 이들 가이성도可以成道 이런가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